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김동리 소설의 근친애 연구

- 「무녀도」와 「역마」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은정

2011년 2월

김동리 소설의 근친애 연구

- 「무녀도」와 「역마」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윤

김 은 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김은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2월

A study of Kim Dong-Ri's novel's incest

– Focused on 「MooNuhDo」 and 「YukMa」 –

Kim Eun-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1.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Dong-yun,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5
3. 연구 범위와 방법	8

II. 개인적 전기와 근친애

1. 부성 상실과 모성 지향	11
2. 큰형 ‘범부’의 영향	16
3. ‘남순’ 누나에 대한 기억	22

III. 작품에 나타난 근친애의 양상

1. 가족의 특이성과 근친애	
1) 어머니 중심 가족의 파행성	26
2) 아버지 부재가 낳은 성장통	34
2. 신앙적 갈등과 근친애	
1) 샤머니즘과 욕망의 향방	37
2) 민간신앙과 운명의 선택	48
3. 공간적 장치와 근친애	
1) 비밀 유지 공간으로서의 집	57
2) 성장 공간으로서의 절	60

IV. 김동리 소설에서의 근친애의 의미

V. 결론

<참고문헌>	69
--------	----

<ABSTRACT>	72
------------	----

I. 서론

1. 연구 목적

김동리(金東里;1913-1995)는 1934년 『조선일보』에 시 「백로」, 1935년 『중앙일보』에 단편소설 「화랑(花郎)의 후예(後裔)」, 1936년 『동아일보』에 단편소설 「산화(山火)」가 각각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섰다. 등단과 동시에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았던 그는 이후 발표하는 작품들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등단 이후 50년 이상을 쉼 없이 시, 소설, 수필, 평론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런 김동리의 작가적 역량과 작품세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에 따른 연구물 또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왔다. 그동안의 수많은 논저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김동리라는 한 작가의 문학 세계를 규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토대를 쌓고자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동리 문학에서 근친애(近親愛) 요소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모티프면서도 따로 분리되어 연구된 바가 없었다. 반세기에 이르도록 축적되어온 그의 작품과 여러 연구물들을 살펴볼 때 이런 주요 모티프가 개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것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유교 이념이 뿌리박혀 있는 일반적인 사회 정서도 그렇거니와, 김동리 스스로 자작 해설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 작품의 균형적인 해명 구조라든가 다양한 시각의 해설을 원하는 이들에게 그의 자작 해설¹⁾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또한 사실이며, 오히려 연구 자체를 정해진 틀에 더욱 가두게 되어 연구자의 시야가 되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1) 김동리는 「무녀도」만 해도 『문장』 1940년 5월호에 실린 「신세대의 정신」을 시작으로 하여 『신문예(1958.11)』 등 여러 지면에 여러 차례 직접 해설을 하였고, 자신의 여타 소설들에 대해서도 해설 및 문학관의 피력을 쉬지 않았다. (김인환, 「자작 해설의 한계-「무녀도」의 경우」, 『민족문화연구』 제4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183-185쪽.)

근친애는 가까운 혈육, 즉 근친간의 애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프로이트(S.Freud)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대상 선택은 언제나 근친애적”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화에서 근친애가 여러 신들 사이에서는 허용되고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 페루, 잉카 제국들의 역사에서는 누이동생과의 근친혼이 왕자에게는 가장 신성한 법도이고 왕족들만의 특권이었다고 언급하였다.²⁾

물론 성(性)적 제한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사회 구성원을 구속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친애는 이를 지칭하는 명확한 어휘가 있는 만큼 반박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사회적 금기이기도 하다. 바타이유(G. Bataille)는 그 이유를 “집단적 질서의 보호를 위한 것”³⁾이라고 추측하였다. 때문에 보편적이면서 단순하고 불변적인 이 금기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근친애는 이를 깊이 생각하고 입 밖으로 언급하는 자체부터가 금기였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표면상 드러내어 논의된 적이 드물었던 터였다.

그런데 김동리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금기를 작품 속에서 드러내었다. 혈연으로 엮인 주인공들은 서로의 관계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 있거나, 신경 쓰지 않기도 하며, 극도로 고뇌하기도 한다. 물론 작품에 근친애적 요소가 담겨있다 하여도 독자들이 거부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내용 전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은 그의 작가적 역량과 능력이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가 작중인물들에게 근친애를 부여한 것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지니고 있었을까. 대중들의 사회적 논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고 하기엔 그 강도가 미약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하기엔 전면적인 부각이 없다.

2) 더불어 프로이트는 근친상간의 유혹을 물리칠 어떤 확실한 자연적인 방어막이 있다면, 굳이 법률이나 관습으로 엄하게 금지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고 반문을 표하며, 반대의 것에서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금기로 삼았다는 주장과 가족과는 어릴 때부터 공동생활을 하므로 성적인 호기심이 향할 수 없기에 금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금지로부터 근친상간에 대한 성적 혐오를 추론하지 말고 자연적 본능이 근친애로 몰고 있다고 추론해야 하며, 이 본능이 다른 자연적 본능처럼 억압된다면 그 근거는 자연적 본능의 충족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문명인들의 입장에 있다고 추론해야 한다고 보았다.(S. 프로이트, 오태환 역, 『정신분석입문』, 선영사, 1992, 300쪽)

3) G. 바타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96, 54-56쪽 참조.

소설은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벌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사건의 연속체이다. 그리고 사건을 전개하는 인물들의 행위란 작품 속에 설정되어 서로 대립하거나 하나로 합쳐지는 힘들 즉, 그 욕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김동리 소설의 인물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가족구성원 간의 핏줄의식과 남녀 간의 애정이란 두 개의 범주로 집약할 수 있다. 물론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을 전후해서 발표된 「형제」(1949), 「귀환장정」(1951), 「실존무」(1955), 「홍남철수」(1955) 등과 같은 작품들에서 당대의 시대적 현실이나 이념적인 문제들에 시선을 돌린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김동리의 본령적인 작품 세계는 이들 핏줄의식과 남녀 간의 애정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

근친애는 혈연의식과 남녀 간의 애정묘사가 두드러지는 김동리의 소설에서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집약하여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본능적인 표현이며 인간과 인간 간의 친화력의 가장 순수한 표상으로 여겨진다. 그것이 곧 인간 간의 자연스런 질서며 사랑의 논리”⁵⁾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친애의 다른 이름은 바로 금기로 인식된다. ‘인간 간의 자연스런 질서’인 동시에 ‘집단적인 질서의 보호’를 위한 금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서 근친애를 적극 활용했을까. 이는 김동리가 문학을 구경적(究竟的) 생의 형식이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전개에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천지의 파편에 그칠 따름이요 우리가 천지의 분신임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체험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생은 천지에 동화(同化)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이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에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곧 구경적 삶이라 부르며 또 문학하는 것이라 이르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구경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⁶⁾

4) 이상구, 「김동리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청람어문학』 제6호, 청람어문교육학회, 1991, 599-602쪽.

5) 김병익, 「자연애의 친화와 귀의」, 『한국문학』, 1973. 12, 245쪽.

6) 김동리,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思考)」, 『김동리 전집 7-문학과 인간』, 민음사, 1997, 71쪽.

인간이 시대와 사회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시대와 사회 그 자체가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시대와 사회의 제약 속에 있으나 또 다른 일면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있는 것이다. 가령 어떤 시대에는 편발(編髮)을 했었는데 그 다음 시대에는 전발(電髮)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회에서는 혈족 결혼이 금지되는데 다른 사회에서는 그것이 허가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이 받은 시대와 사회의 제약성의 일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발을 했던 전발을 했던 그가 여인인 이상 남성을 그리워한다든가, 또는 혈족 결혼을 했던 이족(異族) 결혼을 했던 결국 그들은 다같이 죽고 만다든가 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이 영원히 가지는 인간의 일반적 운명인 것이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이 영원히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도의 해석이나 비평-이것이 문학에 있어서의 참된 사상성 다시 말하면 문학적 사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⁷⁾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것, 인간이 가지는 운명을 발견하는 것을 김동리는 문학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비록 남녀 간의 애정이 주가 되더라도 혈연 의식을 내세우는 가족 중심의 소설은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의해 보수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 그러나 김동리는 구경적 생이라는 그의 문학관과 근친애라는 모티프를 통하여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더욱 극적인 상황을 유도해낸다. 비록 그들의 사랑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작중인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발견하고,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애쓴다.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포착해야만 김동리 문학의 본질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김동리가 평생 천착해온 문학 과정과 근친애 모티프가 작품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작중인물들의 욕망으로 표현되었는지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7) 김동리,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그 환경」, 위의 책, 67쪽.

김동리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예로 들어 부연하고 있다. 김동리는 이 작품이 ‘애욕의 구경’을 그린 것이라 보았다. 인간 생활의 그 어느 부면이든 ‘구경’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신을 구하는 정신에 연결되며,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애욕의 구경을 그림으로써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신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작품에 있어 사상성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애욕의 구경을 그린다는 것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이 영원히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애욕으로서 인간 생활의 긍정적 구경을 삼지 않고 거기서 다시 구신(求神)의 길을 암시한 것은 그의 인생에 대한 훌륭한 해석과 비평이 되는 것이다.

근친애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친상간(近親相姦)이나 상피(相避)라는 용어와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고자 채택하였다. 비록 실질적인 행위와 감정적인 요소를 따져볼 때, 그 원류는 동일할지 모르나 근친상간이나 상피의 사전적 의미처럼 성관계 및 이에 준하는 성적 행위만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근친애라는 단어로 한정하기로 한다.⁸⁾

2. 연구사 검토

「무녀도」를 온전하게 근친혼적 관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자는 양선규⁹⁾가 거의 유일하다. 그는 융 심리학에서 상징하는 인간의식의 원형적 단계(archetypal stages)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를 모화에 적용하고, 모화의 집을 ‘시작과 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시초’라는 의미의 우로보로스(Uroboros)적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는 욕이와 낭이 남매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모화의 죽음이 재생(구원)을 위한 희생제의적 의미이며 그 결과로서 욕이의 나르시시스(narcissus)적 부활이라는 문학적 주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그가 중점을 둔 논의는 모화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아내’, ‘아들-남편 혹은 연인’의 관계였다.

이택화¹⁰⁾는 양선규의 이론을 원용하여 그가 언급만 하고 미처 깊이 논의하지 못했던 「역마」를 살펴보았다. 이택화는 옥화의 주막을 우로보로스적 공간, 옥화를 위대한 어머니라 설정하고 성기와 계연의 사랑을 어머니와 아들의 근친상간을 반복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성기와 욕이는 근친상간의 금기를 지키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하여 자아를 확립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8) 단, 참고문헌의 인용 시에는 원작자가 사용한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9) 양선규 「金東里 小説의 原型的 想像力 研究-「巫女圖」에 나타난 近親婚의 관계(Incest)를 중심으로」, 『김동리』, 살림, 1996, 276-290쪽.

10) 이택화, 「金東里 小説 研究-精神分析的 觀點을 中心으로」,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97, 103-108쪽.

유기룡¹¹⁾은 낭이를 사랑과 죽음뿐 아니라 생명력을 주는 지모신(地母神, mother goddess)으로 보고, 남매간에 이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생명(태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예비적 단계를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실제의 어머니와 맺어진 유대관계로부터 독립해서 원형적인 내용물(archetypal content)로 향하여 그 심리적 에너지를 운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 근친간은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그 양상은 육이와 낭이 남매가 무의식의 낙원상태로 귀의하고자 하는 원형적 욕구에 있다고 하였다.

우한용¹²⁾은 낭이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육이와 모화를 짝패(le double)로 보고, 육이와 낭이의 근친상간은 욕망의 모방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모화가 육이의 운명적 경쟁자로 떠오르고 그녀가 절대시하는 세계의 표상인 낭이와 금기위반을 통해 희생제의(犧牲祭儀)를 치르게 된다고 보았다. 즉, 육이가 본래 낭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인 어미가 낭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상기숙¹³⁾은 근친적 애정을 느끼는 것은 미분화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능에 의해 비롯되는 원시적인 애정관이라 하였다. 김동리의 작품에서 근친간에 자연스러운 사랑이 맺어지는 것은 무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김미영¹⁴⁾은 낭이가 오빠인 육이에게 접근하여 근친상간적 행동을 한 것은 그녀가 접신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평범한 인간에서 트랜스-포제션(trance-possession)을 거쳐 신령의 상태로 이동하면 작중인물들은 한결같이 정염의 분출이 자유로운 존재로 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미영은 김동리의 작품세계에서는 반인륜적인 행위나 근친상간 등이 자연, 혹은 신명이나 신령의 이름으로 용인되고, 심지어 미화되기까지 한다고 보았다.

반면 김인환¹⁵⁾은 근친상간 직전에 육이와 낭이가 서로에게 향하는 리비도

11) 유기룡, 「‘그림’으로 昇華된 ‘毛火’의 죽음」, 『김동리』, 살림, 1996, 531-533쪽.

12) 우한용, 「金東里 小說의 談論 特性-‘무녀도’를 중심으로」, 『김동리』, 살림, 1996, 304-306쪽.

13) 상기숙, 「한국 현대소설문학과 샤머니즘」,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80, 49쪽.

14) 김미영, 「김동리 문학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한국전 이전에 발표된 평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84호, 한국어문학회, 2004. 6, 168쪽.

15) 김인환, 「자작 해설의 한계-‘무녀도’의 경우」, 『민족문화연구』 제4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195-196쪽.

(libido)를 스스로의 힘으로 차단하였다고 보고 있다. 기독교인인 육이는 성적 욕망을 신앙으로 차단하고 낭이의 접근에서 성적인 내용을 차단하였으며, 낭이는 성적인 욕망을 육이로부터 전환하여 그림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근친상간을 향한 욕망이 각각 종교와 예술로 승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명환¹⁶⁾은 육이와 낭이의 근친상간이 이른바 ‘금기-위반’의 모티프에 가까운 설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아버지와 떠도는 낭이의 삶은 금기를 어긴 여주 인공의 시련 과정으로, 즉 낭이는 근친상간, 근친살해의 현장에 있었고 일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구¹⁷⁾ 또한 욕망의 시련 과정으로 「역마」를 보았다. 성기와 계연은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육화는 두 사람의 결혼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만 이들의 욕망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미 운명지워진 근친혼이라는 금기 앞에서 좌절의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우와 김정옥¹⁸⁾은 이 시련을 통하여, 육화는 계연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아 자기의 과오를 무효화시키고 성기는 죽음으로부터 소생할 수 있었으므로 통과제의(通過祭儀)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하였다.

신정숙¹⁹⁾은 육이와 낭이의 관계를 합일(소통)의 불가능성과 합일(소통)의 가능성의 공존으로 보고, 그들의 합일(소통)에 대한 열망이 근친상간이라는 방식으로 형상화 되었다고 보았다. 즉,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소외) 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김동리 소설의 근친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체가 되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구성의 주요 모티프로 일부 언급되는 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근친 모티프를 언급한 연구물의 다수가 연구 초반 논저들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 「무녀도」와 「역마」의 경우는 연구 관점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원형비평(홍수나 영웅 신화 등의 신화비

16) 한명환, 「김동리 초기소설의 재고찰-‘무녀도’와 ‘황토기’의 설화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11호, 우리어문학회, 1997, 182-183쪽.

17) 이상구, 「김동리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청람어문학』 제6호, 청람어문교육학회, 1991, 622쪽.

18) 이상우, 김정옥, 「김동리 소설 연구-‘역마’, ‘바위’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9호,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12, 7쪽.

19) 신정숙, 「김동리 무속소설의 에로티즘 미학」, 『국어국문학』 제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12, 410-411쪽.

평 이론과 혼용하여)을 통하여 작품이 분석되고 있다. 또한 「무녀도」는 주로 사머니즘적 종교관의 모화와 기독교적 종교관의 아들 육이를 중심으로 작품이 연구되는데 중요 인물인 낭이에 대한 접근이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아쉬운 점이 많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근친애적 요소는 김동리의 소설 곳곳에 드러나 있다. 「황토기」(1939)에서 분이는 외삼촌 뺨 되는(정확히는 외삼촌의 이복형제) 득보의 아이를 낳은 과거가 있다. 분이는 득보에 의해 억죄와 혼인하지만 두 사람이 설희에게 마음을 쏟자 득보를 칼로 찌르고 도망친다. 「달」(1947)에서 숙희는 외삼촌 오빠 달이를 좋아한다. 그러나 달이가 글방 사장 딸 정국과 좋아하게 되자 이를 시샘해 온동네에 소문을 내어 정국은 자살하고, 달이 또한 2년 뒤 뒤를 쫓는 숙희가 보는 앞에서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사반의 십자가」(1957)에서의 사반은 아내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내연의 관계를 지속한다. 사반은 유대 독립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마리아는 사반이 이부(異父) 오빠인 것을 알게 되자 홀연히 자취를 감춘다. 「늘」(1964)의 분이는 부모의 재혼으로 석이와 형제가 된다. 늘 혼자 사람 없는 늘에 가곤 하는 석이를 분이는 안타까워하고 결국 늘에 빠진 석이를 구하려다 분이 역시 죽음을 맞게 된다. 「심장 비 맞다」(1964)의 ‘나’는 이종누나 숙영을 사랑한다. 문과를 나와 문예평론가가 된 ‘나’는 인생의 구원과도 같은 존재인 숙영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을 뿐더러, 법과 출신 공무원인 숙영의 남편에게 패배감마저 느낀다.

이렇게 김동리 소설에서 근친애와 관계된 작품이 여럿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무녀도」(1936)²⁰⁾와 「역마」(1948)²¹⁾, 두 단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²²⁾

20) 「무녀도」는 1936년 5월 『중앙』에 처음으로 발표하고, 1946년 제1창작집 『무녀도』(을유문화사)에 개작, 1963년 제5창작집 『등신불』에 개작, 그 후 1978년 4월 『문학사상』에 제목을 「을화(乙火)」라고 고쳐 장편으로 전제하고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21) 「역마」는 1948년 1월 『백민』 12호에 발표되었다.

굳이 「무녀도」와 「역마」 두 편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이 작품들이 비교적 전편에서 근친애 모티프를 활용한 김동리의 대표작이라는 점, 작품 간의 유사성이 인물과 구조 등에서 두드러진 점 등에서 기인한다. 두 작품의 가족 구성 자체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편부 가정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져 있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등장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는 터라 살펴보기 용이하고, 긴밀하게 연관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심층적 연구를 하기에 적합하므로 이 두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작가의 생애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왜 김동리가 근친애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역사 전기적 방법으로 작가의 행적을 확인하였고,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적, 원형 심리학 방법을 동원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어머니 허임순, 형 김범부, 사촌누나 남순(선이의 이미지 포함)의 순서대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롬(E.Fromm)의 마술적인 조력자, 융의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서 버림받음 현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작품 분석에서는 우선 가족의 특이성과 신앙적 갈등 속에 드러나는 근친애를 정신분석학적 방법으로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부재하고 어머니 중심 가족인 작품 상황이 근친애와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프롬과 프로이트의 모성애와 종교애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공간적 장치의 집과 절의 경우는 개인 심리학적 통과제의의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비에른느(S. Vierne)의 통과제의 자체가 통과제의를 거치게 될 대상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라는 이론을 통해 「무녀도」와 「역마」의 주인공인 육이와 성기가 첫 번째 개인의 분리 혹은 격리의 장소인 절과 두 번째 모태회귀의 장소인 집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재탄생의 경로를 찾아가는지 통과제의의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근친애를 통해 김동리 소설의 특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작중인물들이 근친애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며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낙관적일 수 없는 것은 근친애가 단순히 금기의 요소이기

22) 이 연구의 텍스트는 1995년 민음사에서 간행된 『김동리 전집』 1, 2권을 사용하였다. 「무녀도」의 출처는 『김동리 전집 1-무녀도·황토기』, 「역마」의 출처는 『김동리 전집 2-역마·밀다원 시대』이다. 이후 언급되는 본문의 인용구는 해당 권과 쪽수만 기재하기로 한다.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적인 극복으로도 어찌 할 수 없는 한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 「무녀도」와 「역마」를 포함한 김동리의 작품 전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Ⅱ. 개인적 전기와 근친애

1. 부성 상실과 모성 지향

김동리는 1913년 11월 24일(음력), 경북 경주에서 아버지 김임수(金壬守)와 어머니 허임순(許任順)의 5남매 중 셋째 아들이자 막내로 태어났다. 동갑내기인 부모가 42세 때 본 늦둥이였다.

우리 집에서는 대농(大農)으로 불릴 만큼 많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일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마무리짓고 하는 따위의 복잡한 업무가 어머니에게 주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약조에 따라 장삿일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큰형은 학문을 하느라 집안 일을 강 건너 불쭙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큰누나는 시집갈 준비를 하느라 반질그릇을 안고 앉아 있었다. 또 작은형은 아버지를 따라 장삿일을 돕고 있었고, 형수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밥 짓고 빨래하고 망아 찢고 하는 따위의 일을 책임져야 했고, 작은누나는 어려서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편이었고, 그러다보니 갓난아기 책임지고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꼴이 되었다.²³⁾

늘 배고팠던 어린 김동리는 울음이 잦았고, 이유도 모른 채 몹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무서움을 느꼈다. 게다가 가부장적이고 주사가 심한 아버지로 인해 잔잔할 날 없는 집안에서 자라야 했던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기도 하였다.

나는 아버지가 무섭고 밋고 원망스럽기만 했고, 그 아버지에게 곤욕을 겪어야 하는 어머니가 한없이 애처롭고 분하고 억울하게만 여겨졌다. 그때의 무서움, 불안, 진을, 비분(悲憤). 그 저주스러움을 전할 수 있는 말이 나에겐 없다.²⁴⁾

그러나 어머니 허임순은 강단 있는 사람이라, 술을 없애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

23) 김동리, 「소꿉동무 선이의 죽음」, 『김동리 전집 8-나를 찾아서』, 민음사, 1997, 29쪽.

24) 김동리, 「나의 어머니」, 위의 책, 53쪽.

다는 교회 전도 부인의 권고에 따라 김동리가 일곱 살 때 윗대부터 내려오는 신주단지 박살낸 뒤 기독교에 귀의하였다.

어머니는 나와 내 조카를 교회 부속 초등학교(미션 스쿨)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형수와 누나들을 모두 교회로 이끌어내었다. 평생 동안 일만 하고, 아버지의 모든 횡포에도 무저항으로 감수하고 지내던 어머니의 마지막 항거는 이렇게도 철저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한번은 작은형이 어머니에게,

“그렇지만 엄마도 신주단지 박살낸 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불평하자 어머니는

“그렇지만 두 신을 섬길 수 없잖나?”

하고 반문하자 형은 더 입을 떼지 못했다.

(중략)

내가 중학교 미션 계통인 대구 계성과 서울 경신을 거치게 되고, 나중에 「사반의 십자가」를 쓰게 된 것도 멀리는 어머니의 항거에서 연원(淵源)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²⁵⁾

내가 줄곧 미션 계통의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은 나중에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와 기독교 관계라고 하면, 우선 내가 어려서 예배당엘 다니게 된 동기에서, 그리고 그 뒤 미션 계통 학교로만 진전하던 일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0여 년 동안 나는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정독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내가 「사반의 십자가」, 「부활」, 「목공 요셉」, 「마리아의 회태(懷胎)」 등 성경(신약)에서 취제한 소설을 쓴 것은 1954년에서 1959년까지 약 5년간의 일이었고, 성경 이외의 예수 전기물들을 섭렵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지만, 나로 하여금 이러한 소재를 취하게 한 근원은 모두 위의 '10여 년'에 있었다.²⁶⁾

문학과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김동리는 특정 교단에 귀의하지 않게 되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로 인해 다니게 된 교회 성경학교에서 동화를 듣던 기억을 보람이며 자랑이라 하는가 하면, 미션 계통의 학교를 다니며 기독교 분위기에 익숙해진 것이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다 기독교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도 바쁜 어머니 덕분에 김동리는 늘 애정에 굶주려 있었다.

25) 위의 책, 54-55쪽.

26) 김동리, 「문학에 대한 왕성한 식욕」, 위의 책, 93-94쪽.

어머니가 그저 자리에 누운 자신을 곁에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어린 김동리는 행복을 느꼈다.

농가(農家)에서 자란 나는 여름철이 지나야 어머니와 등잔불이 내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만큼 어머니는 여름내 농사일을 돌보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나 뜰에서 보내곤 했다. 저녁에도 늦게까지 자리엘 돌아와 주지 않았다. 나는 혼자 목이 메어 어머니를 기다리다 대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잠이 들곤 했다.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뜰 때면 이미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난 뒤이게 마련이었다.

(중략)

내가 어머니를 완전히 찾는 것은 귀뚜라미가 바로 베개맡까지 다가든 늦가을이라야만 했다. 울 밑에서 섬돌 밑으로, 섬돌 밑에서 시렁 밑으로, 시렁 밑에서 바로 베개맡으로 귀뚜라미가 바삭바삭 다가와 주변 어머니도 반질고리를 안고 등잔 밑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다.

나는 등잔불과 그 곁에 바느질감을 들고 앉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행복에 젖는다. 아무리 밤이 깊어와도 잠이 오질 않는다. 깊어질수록 더욱 세차게 우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내 눈은 자꾸만 더 말뚱거릴 뿐이었다.²⁷⁾

위의 일화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김동리의 가정이 아버지 중심에서 어머니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자수성가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던 아버지 김임수가 주벽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가 사망하자, 어머니 허임순은 장남 기봉(범부)에게 가정의 역할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어 받는다.

김임수의 사망 후 가계는 점차 기울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사를 하던 차남 영봉조차도 내내 실패를 거듭하여 김동리와 조카는 학업을 중단하게까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랬기에 김동리에게 어머니는 철저한 마지막 항거를 통하여 경외심까지 자아내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쉼새 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곽상순은 김동리의 성장기와 관련하여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 혹은 부재하는 아버지라는 인식을 유의점으로 살피고 있다. 그는 작품에 편모슬하의 주인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늦둥이로 태어난 덕분에 겪어야 했던 아버지의 연로함과 이른 타계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보았다. 「무녀도」의 육이를 비롯하여 「역마」의 성

27) 김동리, 「어린 시절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 위의 책, 62-63쪽.

기, 「까치 소리」(1966)의 봉수 등이 모두 편모슬하의 아들들이다. 뿐만 아니라 김동리 소설 속의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다양하고 중요한 관계로 설정되는 데 비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에 비해 김동리의 어느 작품에서든 그가 특별히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가 저명한 유학자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유학에 대한 관심만을 접은 채 무속신앙과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신앙에 심취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와 그 가문에 대한 일종의 적대감과 거리감의 무의식적인 표현이었으리라 하는 것²⁸⁾이다.

어려서는 아버지와 불화로, 1926년 아버지 사후에는 작은형과 더불어 집안을 이끌어 가느라 바빴던 어머니의 모성애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던 김동리는 ‘모성애 소설’을 많이 창작하였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그의 애정 추구가 환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소설화된 것으로,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소외가 모성애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다룬 작품들에는 「어머니」(1937), 「절레꽃」(1939), 「동구 앞길」(1940), 「미수(未遂)」(1946), 「아들 삼형제」(원제 어머니와 그 아들들, 1948), 「근친기(觀親記)」(원제 심정, 1949), 「유혼설(遊魂說)」(1964) 등이 있다.²⁹⁾

어두운 가을 저녁, 낫선 주막에서 혼자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는 내 가슴속은 웬지 모르게 텅 빈 듯했다. 못 견디게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했다.

웬지, 그렇다. 까닭 모르는 일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집도 직장도 마누라도 자식도 손주도 일가친척에 친구도 있다. 나이는 예순이지만, 이렇게 할 병이 없어 차(茶) 맛도 알고, 서예도 즐기고, 경마도 한다.

웬지, 그 까닭을 충분히 알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이 가슴의 쓰라림은 많이 다스려지지 않을까.

28) 광상순, 「모성적 전통지향의 소설화 혹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문학화」, 『작가세계』 제67호, 2005 겨울, 21쪽.

29) 이택화, 「金東里 小說 研究-精神分析的 觀點을 中心으로」,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97, 100-101쪽.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내가 어려서 부르던 이 노래를 새삼 눈물겹게 되뇌이곤 하는 것은 나이 오십이 자년 뒤부터다. 이것은 효심이라던가 그런 것도 아닌 줄로 안다. 무언지 생명의 근원을 위협하는 듯한 어두운 향수 같은 것이 아닐까.³⁰⁾

예순 즈음에 쓴 위의 에세이에는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의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동리 자신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세상 떠난 어머니를 만나는 것으로 꼽고 있다. 이는 어린 시절 그대로 멈추어져 자라지 못한 마음을 첫 번째 애정의 시작이요, 무한한 그리움만을 남긴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가 위로 받고 싶은 욕구의 표출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어린아이는 자신의 이기주의로부터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이후 성장한 뒤에야 사랑의 충동과 이기심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초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은 자기와 제일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쏠린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그리스 신화에서 기원하여 프로이트에 의해 정신분석적 용어로 고착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로 설명된다. 이 콤플렉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은 아들의 극단적인 원망(願望)에서 유래³¹⁾한 것으로, 프로이트는 애정

30) 김동리, 「예순 나이 무렵」, 『김동리 전집 8-나를 찾아서』, 357-358쪽.

31) 그리스 신화 중 하나.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곧 태어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神託)을 받는다. 아이가 태어나자 발목을 꿰어 가죽끈으로 묶고 키타이론의 산중에 내다 버렸는데,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이 주워다 기른다.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는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받았던 신탁과 같았다. 그는 이를 피하려고 방랑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 사소한 시비 끝에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모른 채 죽이고 만다. 당시 테베에는 스팅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수수께끼를 풀어 스팅크스를 죽인 후 왕위에 오르고,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왕비를 아내로 삼아 네 아이를 낳는다. 이후 테베에 나쁜 병이 나돌고, 오이디푸스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알자 두 눈을 뽑아내고 방랑하다 죽었다. 왕비도 자살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왕위를 둘러싼 골육상쟁으로 모두 죽고 말았다.(P. 그리말, 최애리 역,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 열린

에 있어서의 경쟁을 성적인 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남자아이는 이미 유아기 때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자신이 독점하기 위해 아버지를 자기와의 경쟁자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구속의 화신’이지만,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기심으로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의 전형’³²⁾이다.

부모에게서 분리됨으로써 어린아이는 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아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자기의 리비도적 원망을 어머니에게서 돌려, 알지 못하던 현실의 연애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아버지와 반목 상태에 있다면 화해하고,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다면 압박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그런데 김동리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하기도, 그렇다고 욕구를 충족할 만큼의 애정을 받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른 사별로 끝내 화해하지 못했고, 이후 우울했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도 그 시기를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안에 종교, 도덕, 사회 및 예술의 시초가 동시에 들어 있다”³³⁾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김동리의 문학은 어머니에게부터 비롯하여 미처 해소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욕구불만의 해소로 볼 수 있다. 그의 소설 속의 어머니는 그가 갈구하던 애정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모성애 소설 속의 어머니로, 금기 이전에 리비도를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2. 큰형 ‘범부’의 영향

작가 스스로 숭한 지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그의 인생과 문학과 사상의 스승이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는 바로 그의 큰형인 범부(凡父) 김기봉

책들, 2003, 385-388 참조)
32) S. 프로이트, 위의 책, 200, 332쪽.
33) S. 프로이트, 김현조 역, 『토텐과 금기』, 경진사, 1993, 227쪽.

이다. 열일곱 살 위인 형 범부는 형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이상의 가외스러운 존재였으며 평생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였다.

프롬은 개인을 보호하고 도우며 발전시키고 그와 더불어 존재하며, 그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는 기능을 가진 ‘어떤 것’을 ‘마술적인 조력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그는 신이라든가 원리로서 또는 한 사람의 양친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든가, 또는 손윗사람과 같은 실제적인 인간으로서 의식된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인간들이 마술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때, 그들은 마술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며, 그들이 가지는 의미는 그들이 마술적인 조력자로 인격화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술적인 조력자의 인격화 과정은 ‘연애’와도 같아서 그는 그 사람을, 그의 전 삶에 연관되고 의존하게 되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³⁴⁾

나는 백씨가 지상에 있었던 두드러진 천재의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그에게 만약 천재를 뒷받침할 만한 건강과 의지와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던들 공자나 기독에 준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³⁵⁾

홍기돈은 작가에게 끼친 범부의 영향이 다른 작가들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보았다. 그는 범부와 김동리의 관계를 정신적·사상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파악했다. 범부의 사상이 작가의 세계관과 내면 세계에서 원형질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내내 범부와 닮아가고자 노력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이미 내면화된 범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김동리의 문학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며, 따라서 범부를 중심항으로 두고 이를 자기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산물인 그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부를 탐구하는 일이 중요하게 요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³⁶⁾

34) E.프롬, 이규호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건전한 사회』, 삼성출판사, 1983, 159쪽.

35) 김동리, 「백씨 범부 선생 이야기」, 『김동리 전집 8-나를 찾아서』, 421쪽.

36) 홍기돈, 「김동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3, 3쪽.

홍기돈은 또한 위 논문에서 최하림과 김지하 역시 김동리와 서정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후에 있는 범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음을 인용하고 있다.

내 나이 일곱 살 때의 일이다.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시는 늦여름 어느 날 밤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밖에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채 형제들만이 딸의 명석에 모여 앉아 있었다. 작은형과 매형은 제사에 쓸 실과를 다듬고 있었고, 큰형(범부 선생)은 그 곁에 앉아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

나는 누운 채 큰형에게 물었다.

“형님, 할아버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

큰형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매형이 가로막아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꼬 하잖아?”

“그러면 밤마다 별이 많아지겠구만.”

내가 이렇게 응수를 하지 큰형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창봉이도 철학하겠다이.”

이 말을 들은 나의 가슴은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큰형은 신동이요 이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꿰뚫어 내다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략)

내가 초등학교(그때는 보통학교라고 불렀다) 6학년 때부터 글을 쓰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문학책과 철학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큰형의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믿는다. 이리하여 나는 오늘 같은 문인의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닐까.³⁷⁾

백씨는 시를 한참 들여다보고 나더니 ‘물에서 남녘이 생겨나던 옛날, 개구리 알은 은하처럼 뚱뚱 흘러갔거니’하는 절을 밑줄치며,

“철학보다 문학 쪽이데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백씨는 나에게 시종(始鍾)이란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다.

“남자가 스무 살이 되면 자(字)를 쓰는 거다. 내가 미처 네 이름을 지어놓지 못하고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맘에 덜 든다. 그러니까 스무 살이 되거든 이름 대신 시종이라는 자를 쓰도록 해라.”³⁸⁾

1934년 『조선일보』에 시가(詩歌) 「백로」가 입선되었을 때는 호적명(창귀)을 썼다. 다음 해 「화랑의 후예」가 당선되었을 때는 백씨가 지어준 아호(시종)를 썼었다. 그리고 1936년 동아일보의 「산화」는 지금 쓰는 이름(동리)으로 당선이 되었었다. 그 뒤 나는 다시 현상 문예에 응모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이름을 쓸 필요도 없어졌고, 따라서 김동리

37) 김동리, 「마음과 몸을 앓다」, 『김동리 전집 8-나를 찾아서』, 36-37쪽.

38) 김동리, 「문학에 대한 왕성한 식욕」, 위의 책, 96쪽.

는 내 펜네임(필명)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내가 「산화」를 쓴 해인사에 있을 때다. 나는 이것을 다음해의 신춘문예에 응모할 작정으로 혼자서 가만히 동허(東虛)란 이름을 새로 하나 지어놓고 그것을 내 백씨께 보여드렸더니, 백씨께서는 그게 무슨 이름이냐고 핀잔을 주면서, 김동리라고 고쳐주었다. 평범하되 속되지 않고, 흔한 듯하되 귀한 이름이라 하기에 나는 곧 이것을 쓰기로 했다.³⁹⁾

위의 일화들을 살펴보면 철들기 전인 어린 시절부터 문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성인이 되기까지 범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한 마디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지침으로 삼는 김동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범부 또한 나이차 많은 어린 동생이라 하여 간섭하거나 휘두르려 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조언하는 것으로 인생의 멘토(mentor) 역할을 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부에게는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다. 일경의 감시를 받느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지만, 범부가 있는 곳마다 열리는 강좌 등에는 여러 지식인들이 모이곤 했다. 범부를 찾아 상경하는 일이 잦던 김동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평생을 이어갈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 중 1933년 가을, 서울 필운동의 범부 숙소에서 만난 미당(未堂) 서정주를 빼놓을 수 없다. 김동리가 ‘전세의 인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 통했’던 미당과 김동리는 해방 후에 함께 청년문학가협회를 만들고 예술원 회원이 되는 등 문학 활동의 동기가 되었다.

1936년 다솔사(多率寺)시절 하동에서 온 김종택이라는 문학청년도 있었다. 반년 뒤 그가 경영하는 양조장이 있는 화개협을 찾은 김동리는 그곳에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

화개협의 경관은 과연 김군이 말한 대로 장관이었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는 약 이십 리 가량 되었는데, 구비구비 주막이 있고, 색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은어 회가 있고, 장려한 풍경이 있고 해서 나는 조금도 피로를 모른 채 걸을 수 있었다.

나의 「역마」란 소설도 이때 얻은 착상이다.

「역마」에 나오는 화개 장터니 쌍계사니 화개골이니 하는 것이 김군이 살던 고장이었다.

우리는 이 화개골에서 잡아 내는 은어, 붕어, 꺾뚜기 따위를 사서 회를 치게 하고, 마

39) 김동리, 「이름이야기」, 위의 책, 416-417쪽.

늘과 풋고추를 알맞게 다져놓은 초고추장에다 막걸리를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꿈 같기만 하다.

아, 그 물고기 회 맛, 그 막걸리 맛, 그리고 그 햇빛, 그 수풀.⁴⁰⁾

또한 그때 김종택이 쌍계사 여관에서 마련한 술자리에서 만난 자매 기생 이야기는 소설 「당고개 무당」(1958)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징용을 피해서 숨은 곳도 김종택의 하동 집이었으니, 이 또한 범부로 인해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라 하겠다.

하지만 범부의 존재가 늘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노력과 정성으로 수년 간 운영했던 광명학원이 일경의 간섭에 의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 등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김동리는 범부의 근황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건강마저 이상을 겪었다.

조카는 쪽으로 물을 떠서 난초에 주고 나서 불쭉,

“나는 지금 서울로 갑니다.”

하는 것이다.

“와?”

나는 무언지 마음속에 지피는 것이 있어 가슴이 덜렁했다.

“오늘 아침 땀니다. 경기도 경찰국에서 나왔다면, 경남도 경찰 사람과 같이 와서 아버지를 연행해 갔습니다.”

조카는 될 수 있는 대로 흥분한 빛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이렇게 말했다.

“와?”

내 목소리는 이미 꺼져들어가는 듯이 가늘었다. 나는 맥이 탁 풀려버리며 갑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 문턱에 탁 주저앉아 버렸다.

(중략)

형님이 경기도 경찰국으로 잡혀간 뒤부터 나는 가슴에 답(痰)이 붙고, 소화불량증이 생겼다. 무언지 식도(食道)에 끼얹힌 것이 가셔지지 않았다.

그것을 나는 음식이 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마자 기름을 먹으면 체한 것이 말끔히 씻겨 내려간다고 몇 차례나 피마자 기름을 마시곤 했다(그 기름을 먹을 때의 고통이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답과 체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른쪽 갈비뼈 밑이 짜릿하게 아프

40) 김동리, 「화개장터와 역마」, 위의 책, 185-186쪽.

고, 목구멍에 무엇이 치밀어 올라오다 걸려 있는 듯한, 야릇한 증세는 차츰 기침까지 곁들이기 시작했다.⁴¹⁾

그 해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 2월이 되니 이번에는 경남도 경찰국에서 또 백씨를 연행해 갔다. 역시 독립운동 운운이었다. 이번에도 6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다가 그대로 석방되었다.

나의 병세는 형님의 구속과 석방에 따라 묘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형님이 경기도 경찰국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갈비뼈 밑이 찢릿하게 아프고, 목구멍에서 무엇이 넘어오던 병세는 그 해 가을 형님의 석방과 함께 씻은 듯이 나았다가 이듬해 봄에 형님이 경남 경찰국으로 잡혀가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는 다시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⁴²⁾

사실 마술적인 조력자에 대한 관계의 강도는 개인의 지성적·정서적·감각적인 잠재력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반비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술적인 조력자에 의해서 삶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삶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부터 한층 더 마술적인 조력자와 인격화된 그에게로 옮겨간다. 문인의 뜻을 펼치고자 노력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을 때 김동리는 범부가 머무는 곳을 쫓아 이곳저곳을 떠돌았으며, 온몸을 바쳐 투신했던 광명학원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닥치자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던 범부와 정신적으로 동화하기라도 한 듯 힘겨워하였다.

바호펜(J. Bachofen)은 아버지는 자식이 성장하고 책임을 지며 생각하고 사람됨을 닦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아이의 관계는 어머니에 대한 것만큼 강하지는 못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삶의 최초 몇 년 간에 걸쳐 가지는, 모든 것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며 사랑하는 역할을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부계적 사회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관계가 한편으로는 복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발이어서, 이와 같은 관계는 그 자체가 영속적인 분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⁴³⁾ 김동리는 아버지 중심 가족에서 어머니 중심 가족으로의 전환 속에서 무사히 편입하여 자라났지만, 이미 깊숙이

41) 김동리, 「광명학원 문을 닫다」, 위의 책, 198-199쪽.
42) 김동리, 「땅나니들과 어울리다」, 위의 책, 200-201쪽.
43) E.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앞의 책, 278쪽.

배인 아버지 중심 가족의 두려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미 복종과 반발을 경험한 김동리는 어머니 중심 가족에 만족하고 어머니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형 범부에게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다. 대개 어머니에 대한 욕구불만은 아버지와의 대립과 형제와의 경쟁으로 인해 억압 받고 배척당하는 양상을 띠지만, 긍정적인 아버지이자 형이며 마술적인 조력자인 범부가 대상이기에 그는 인간적 유대와 일치⁴⁴⁾마저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김동리의 소설 속에서 형제간의 애정은 현실에 대한 구원의 역할이자 인생의 지침을 유도하는 파장이기도 하다.

3. '남순' 누나에 대한 기억

김동리는 다섯 살 때 이웃에 살던 한 살 위인 소녀 선이에 대한 감정을 첫 번째 연애감정이라 언급⁴⁵⁾하고 있다. 우물가의 살구꽃을 매개로 하여 단짝이 된 선이는 유일한 소꿉동무이자 처음으로 겪게 된 죽음의 기억으로 이후 오래도록 어린 그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그리고 일곱 살 때 김동리는 다섯 살 위인 고종사촌 누나 남순에게 두 번째 연애 감정을 느낀다. 둘째고모의 막내딸인 남순은 읍내 학교에 다니느라 종종 그의 집에 묵곤 했다.

두 눈이 크고, 눈동자가 검고, 얼굴빛이 유난히 희멀겁기로는 어딘지 죽은 선이와 비슷

44) 프롬은 '형제애'라는 말이 책임, 보호, 존경,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촉진 하려는 소망이라 말하고 있다. (E. 프롬,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70쪽) 김동리가 태어났을 때 범부는 이미 제 가정이 있는 성인이었다. 학문적으로 출중한 범부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김동리에게 카인 콤플렉스(cain complex)나 열등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 등이 생성되지 않았던 것은 '마술적인 조력자'인 그의 위치도 있었겠지만 열일곱 살이라는 나이차도 한 몫 한 것으로 여겨진다.

45) “선이의 죽음이 그렇게도 나의 어린 가슴을 눈물로 멎들게 한 것은 죽음의 손길이 너무나 뜻밖에 나를 때렸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나는 그애를 이미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연애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리, 「소꿉동무 선이의 죽음」, 『김동리 전집 8-나를 찾아서』, 33쪽)

했다.

나는 이 누나가 우리 집에 오면 왜 그렇게 기쁜지 가슴이 마구 뛰었다. 나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는지 그 누나도 유독 나에게 친절했고 나와 함께 있어주곤 했다.

한번은 누나가 왔을 때 마침 살구꽃이 환히 피어 있었다. 누나는 내 손목을 잡고 우물가로 가더니 살구꽃을 한참 쳐다보다가 내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창봉아, 살구꽃 참 예쁘게?”

“.....”

나는 문득 죽은 선이를 생각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누나는 다시 살구꽃으로 얼굴을 돌리며,

“맹아리(망울)는 뽕(붉)고 꽃은 회제?”

했다. 그때 그 누나의 목덜미가 몹시 새하얗게 보였고, 나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순이 누나는 우리 집에 꾸준히 들렀고, 그럴 때마다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떨리곤 했다. 그러다가 누나가 저희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나는 울고 싶도록 슬프고 쓸쓸했다.

한번은 누나의 검정 치맛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목멘 소리로,

“누나 가지 마.”

했더니 누나는 웃으며,

“또 올게, 창봉아.”

하고 새하얗고 통통한 손바닥으로 나의 볼을 쓰다듬어주었다.

나는 몇 차례던가 누나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떼를 썼다.

“누나, 나 누나네 집 따라갈란다.”⁴⁶⁾

남순이 죽은 선이와 비슷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동리는 남순을 통해 선이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녀를 잘 따랐다.

날이면 날마다 일요일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게 되었다. 졸업한 뒤부터 누나가 읍내에 들어오는 것은 일요일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남순이 누나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보러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 집엔 좀처럼 들르려 하지 않았다. 같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누나가 야속해서 울상이 되곤 했다.

그 해 겨울 누나는 그녀의 나이 열여섯 살 때 무슨 병으론지 죽고 말았다.

열아홉 살 나던 해 혼자서 잡지를 꾸렸는데, 거기다 「누나의 추억」이란 소설을 썼다. 물론 남순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꼭 10년이 지나도록 나는 그 누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46) 김동리, 「마음과 몸을 얹다」, 위의 책, 38-39쪽.

선이와 남순이 누나와 살구꽃은 어딘가 닮은 것같이 나에게는 느껴진다.⁴⁷⁾

제대로 된 감정을 깨달을 새도 없이 죽음부터 안겨준 선이와는 달리 남순은 기쁨, 슬픔, 쓸쓸함, 두근거림, 야속함 등의 다양한 감정을 김동리에게 알려주었다. 두 소녀의 연이은 죽음으로 김동리는 우울하고 병약한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안에는 변치 않는 꽃과 소녀의 이미지가 형태를 이루어 오래도록 그리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복사꽃으로 묘사된 「무녀도」의 낭이나 연꽃과도 같은 눈을 가진 「역마」의 계연은 김동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인상을 준다.

김동리의 실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1938년 26세 때 김월계와 결혼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과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로 인해 부부관계가 늘 삐걱댔다. 그 뒤 1949년 작가 손소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그는 한바탕 소동 끝에 김월계와 이혼하고 손소희와 재혼한다. 하지만 1967년 30세 연하의 작가 지망생 서영은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또 내연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

우리의 목숨 하나하나
눈물 방울 하나하나

그것은 모두 가서 땀어지리라.

극락과 지옥이 신선한 과일 함께
식탁 위에 놓인 정오
아아 까마득하게 쳐다보이는 저 멀리
절벽 위에 핀 꽃이어⁴⁸⁾

김동리가 표현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어머니와 소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어머니는 무한한 애정을 주는 이요, 소녀는 아스라함과 두근거림을 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다. 그러나 김동리 안의 소녀는 어머니로 성장하는 대신 다른 꽃의

47) 김동리, 「마음과 몸을 앓다」, 위의 책, 39쪽.

48) 김동리, 「꽃과 술과 나」, 위의 책, 431쪽.

이미지를 가진 다른 소녀로 변화하는 인상을 준다. 차라리 극락과 지옥이 가까이 있을지언정 까마득히 쳐다보일 만큼 멀리 있는 절벽 위의 꽃이 바로 김동리의 소녀인 것이다. 이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그 자신의 어린 모습이 투영되어서가 아닐까 하고 여겨진다.

융(C. G. Jung)은 어린이는 자립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서는 성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버림받음’이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식은 근원으로부터 떨어져나가야 할 필요성을 자신에게 가르쳐줄 어떤 상징을 필요로 한다는 것⁴⁹⁾이다. 김동리는 어린 자신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해준 선이와 남순에게 버림을 받음⁵⁰⁾으로써 분리를 시도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욕구불만인 상태였다. 상징의 의미로 출발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갈등상태에서 멈춰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두 소녀는 두 소녀대로의 이미지를 각인한 채 어린아이의 본질을 간직한 애정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김동리 소설에서 근친애가 주요 모티프로 종종 등장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9) C. G. 융, 이유경 역,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 대하여」, 『융 기본 저작집 2-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2003, 258쪽.

50) 선이(홍역 내지는 폐렴으로 추정)와 남순 둘 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한다.

Ⅲ. 작품에 나타난 근친애의 양상

1. 가족의 특이성과 근친애

1) 어머니 중심 가족의 파행성

「무녀도」의 모화 가족과 「역마」의 옥화 가족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두 가정 모두 아버지가 부재하는 어머니 중심의 가족이라는 것이다.

모화는 귀신이 지피기 전 살던 모화 마을에서 옥이를 낳았고, 무녀가 된 후 낭이를 낳았으나 이 남매는 둘 다 사생아이다. 언급조차 되지 않은 옥이의 아버지와는 달리, 낭이의 아버지는 작품의 전후에 모두 등장하지만 그저 ‘낭이의 아버지’일 뿐 모화의 남편은 아니다. 옥화는 그녀 자신부터가 사생아로서 아버지는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이요, 아들 성기의 아버지조차도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2권 106쪽)이다. 성기의 아버지는 강원도 쪽에 있으리라고 짐작은 하지만 옥화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직접 찾아 나서려고도 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애타게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모화와 옥화가 남편의 부재에 대해 심히 아쉬워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사람 다 자신의 직업이 있어 생활을 꾸릴 능력이 되어서기도 하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식에게 그만큼의 애정을 모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녀도」의 경우 “부엌에 들어서기를 그렇게 싫어하던 낭이”(1권 82쪽)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화의 딸 낭이는 전혀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홉 살 옥이와 헤어질 때의 낭이가 대여섯 살이었으니, 열아홉 나이로 돌아온 옥이의 나이에 맞춰보자면 낭이 또한 열대여섯 살은 족히 먹었을 테니 충분히 가사를 꾸려가거나 도울 만도 하건만 낭이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⁵¹⁾ 모화 또

51) 옥화의 집에 머물게 되자마자 능숙하게 주막 일을 돕고 나물 캐기와 빨래 등 집안의 잔일을 도맡는 「역마」의 계연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 그런 낭이를 닮았거나 가르치는 대신 ‘따님’이라 부르고 여름 한철 내내 복숭아를 사다 주며 귀하게 여긴다.

「역마」의 성기 또한 무녀독남 외아들답지 않게 외할머니가 죽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걱정한다든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대신 “어디로 훨훨 가보”(2권 105쪽)기만을 소망한다. 옥화 또한 그저 성기가 장가들어 제 옆에서만 살아준다면 무엇을 하고 살든 그리 꽤넘치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모화와 옥화가 다른 여염집 어머니와는 달리 제 아이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모화의 말을 들으면 낭이는 수국 꽃님의 화신(化神)으로, 그녀(모화)가 꿈에 용신(龍神)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꿈꾼 지 이렛 만에 낭이를 낳은 것이라 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수국 용신님은 따님이 열두 형제였다. 첫째는 달님이요, 둘째는 물님이요, 셋째는 구름님이요…… 이렇게 열두째는 꽃님이었는데, 산신님의 열두 아드님과 혼인을 시키게 되어 달님은 햇님에게, 물님은 나무님에게, 구름님은 바람님에게, 각각 차례대로 배혼을 정해 나가려니까 막내따님인 꽃님은 본시 연애를 좋아하시는 성미라,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미처 기다릴 수 없어, 열한째 형인 열매님의 낭군님이 되실 새님을 가로채어버렸더니 배필을 잃은 열매님과 나비님은 슬피 울며, 제각기 용신님과 산신님께 호소한 결과 용신님이 먼저 크게 노하고 벌을 내려 꽃님의 귀를 먹게 하시고, 수국을 추방하시니, 꽃님에서 그만 복사꽃이 되어 봄마다 강가로 산기슭으로 붉게 피지만 새님이 가지에와 아무리 채갈려도 지금까지 귀가 먹은 채 말 없는 병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

모화는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다 말고, 별안간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했다. 물으면 집에서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고 했다.

그녀는 수국 용신님께서 낭이 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말아 있는 것뿐이라 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약 이 따님을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어머님 되시는 용신님의 노역을 살까 두렵노라 하였다.(1권 81-82쪽)

모화의 아들이자, 낭이의 이부 오빠 옥이는 미친한 근본 때문에 공부도 여의치 않자 알지도 못하는 절에 보내어져 이후 십 년 동안 소식 없이 서로 헤어진 채 살아간다. 그러나 모화는 그렇게 보낸 옥이와는 달리 낭이는 직접 키우며 한집에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이 역시 옥이와 마찬가지로 무당의 자식이라는 미친한 근본이지만 어머니 모화에게는 두 아이의 출신이 엄연히 다르기 때

문이다. 낭이는 아버지를 두어 제 속으로 낳은 딸이기는 하지만, 큰어머님 된다는 용신님이 직접 점지하여 맡아두기를 청한 수국 꽃님이므로 정성껏 섬겨야 할 존재이다. 그렇기에 낭이는 간신히 국문을 읽는 정도에서 만족한 채 더는 공부에 대한 필요도, 혼인에 대한 염려도 없이 온 종일 저 하고 싶은 대로 방에서 그림만 그리며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당사주(唐四柱)라면 다시는 더 사족을 못 쓰던 할머니는, 성기가 세 살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역(時天驛)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을축을 잘못 짚지나 았았나 하여, 큰절(쌍계사를 가리킴)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 물어 보고, 지리산 속에서 도를 닦아 나온다면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물어 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애비 팔자를 따라 갈려는 게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 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엔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단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박고 들었다.

“이년아, 에미한테 너무 오금 박지 마라. 남사당을 붙였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나, 너더러 찾아달라 성화를 댔나?”

그러나 서른여섯 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배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같이 ‘화개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머니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을 시켜서 살을 때우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라도 시켜서 풀어 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2권 105-106쪽)

옥화의 아들 성기는 남사당이었던 외할아버지와 떠돌이 중이었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시천역의 사주를 타고 났다. 당사주는 중국당대(中國唐代)에 성행했던 사주학(四柱學)이며, 당나라 때의 사주법(四柱法)을 약칭하여 당사주라 불린다. 12개의 지지(地支), 12개의 성(星), 12개의 신살(神殺), 형(形), 충(沖), 합(合)

으로만 간명하므로 매우 단순하고 명쾌한 논법을 가진다. 그리고 단순함에 비해 적중률이 뛰어나 예부터 서민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그 중심이신살(十二神殺)은 겁살(劫殺)·재살(災殺)·천살(川殺)·지살(地殺)·년살(年殺)·월살(月殺)·망신살(亡身殺)·장성(將星)·반안살(攀鞍殺)·육해살(六害殺)·화개살(華蓋殺)·역마살(役馬殺)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의 명을 받되 연월일시(年月日時) 등에 따라 운명의 길흉조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시천역, 즉, 역마살에 대해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명에 역마가 들어 있으니 자주 이사하게 되리라. (命入驛馬 移徙頻繁)
 군자는 이름을 이뤄 벼슬의 관작과 록을 더하리라. (君子成名 加官爵祿)
 인생이 물과 같은데 성공도 많고 실패도 많다. (人生如流 多成多敗)
 바람 맞으며 고향을 떠나니 안궁은 서북이로다. (迎風離地 雁宮西北)⁵²⁾

하나뿐인 아들이며 손자가 자신들 곁을 떠나게 될까봐 조바심을 내며 온갖 대책을 강구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속을 뻘히 알면서도 성기는 감감함을 이기지 못하고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 지금이야 옥화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녀드리를 해대며 붙들고 있지만 이 또한 마음을 놓을 상태는 아니다.

결국 낭이와 성기는 언젠가는 어머니 옆을 떠날 아이들이다. 용신님에 의해 모화에게 잠시 맡겨진 낭이는 제 벌을 다 받고 나면 다시 수국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느 무당에게 보여 봐도 끝내 시천역을 피할 수 없던 성기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라도 제 살을 핑계 삼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모화와 옥화는 허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야 떠나는 시간을 최대한 미루어 품 안의 자식으로나마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슴속에 조그마한 불안의 불씨를 키운 채 살아가던 이 두 가정에 불길 치솟게 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일원의 방문 때문이다.

「무녀도」의 모화 가족은 십 년 전 헤어졌던 아들 옥이의 방문을 받는다. “까망

52) 이수, 『당사주』, 동화사, 1997, 17-19, 28쪽.

게 소식조차 묘연”(1권 83쪽)하게 지내온 세월이건만 옥이는 제 집을 무사히 찾아오고, 해후의 기쁨을 나눈다. 옥이와의 재회 장면에서 보이는 두 모녀의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길한 예감의 단초를 풀어놓는다.

모화는 장에서 돌아와 처음 옥이를 보았을 때, 그 푸른 얼굴에 난데없는 공포의 빛이 서리며 곧 어디로 달아날 것같이 한참 동안 어깨를 뒤틀고 허둥거리다가 말고 별안간 그 후리후리한 키에 긴 두 팔을 벌려, 흡사 무슨 큰 새가 저희 새끼를 품듯 뛰어들어 옥이를 안았다.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아이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모화는 갑자기 목을 놓고 울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너가 왔나, 너가 왔나?”

모화는 앞뒤도 살피지 않고 온 얼굴을 눈물로 씻었다.(1권 83쪽)

위의 인용문에서 ‘그 푸른 얼굴에 난데없는 공포의 빛이 서리며’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녀도」에서 모화와 낭이 모녀에 관한 묘사를 할 때 한색(寒色)인 푸른색 계통의 표현을 종종 쓴다. 두 모녀가 사는 쓰러진 기와집 지붕 위의 버섯도 퍼렇고, 수채가 딱혀 빗물이 고여 마당에 뒤덮인 물이끼도 시퍼럴 뿐더러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다 누군가 곳을 청하러 집을 찾아오면 구석에서 와들와들 떠는 낭이의 얼굴도 파랗고, 특하면 술에 취하고 화랑이들과 어울려 춤을 추면서도 매양 수줍어하는 모화의 얼굴빛도 푸르다. 무엇보다 낭이(琅伊)는 제 이름자(字)에서부터 푸른빛의 기운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 도깨비굴 같은 집에 돌아온 옥이(昱伊)는 유량해 다닌 사람 같지 않게 품위 있고 아름다운 얼굴에, 제 이름처럼 햇빛 비치듯 환한 난색(暖色)의 존재이다. 애초부터 자신과는 빛이 다른 존재감에 모화는 순간 옥이가 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빛이 서리며, 이 반응은 낭이 또한 다르지 않다.

처음 혼자 방에 있는데, 어떤 낯선 청년이 와서 방문을 열기에 너무도 놀라고 간이 뛰어 말-표정으로라도-한 마디도 못하고 방구석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던 것이다. 낭이는 그 어머니가 옥이를 얼싸안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며 우는 것을 보고 어찌먼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낭이는 그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인정이 있다는 것을 보자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1권 84쪽)

간혹 원근 동네에서 모화에게 곳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방문 앞까지 들어서며,

"여보게, 모화네 있는가?"

"여보게, 모화네."

하고, 두세 번 부르도록 대답이 없다가, 아주 사람이 없는 모양이라고 툇마루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열려고 하면, 그때서야 안에서 방문을 먼저 열고 말없이 내다보는 계집애 하나, -그녀의 이름이 낭이었다. 그럴 때마다 낭이는 대개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놀라 붓을 던지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와들와들 떨곤 하는 것이었다.(1권 80쪽)

옥이와 재회한 낭이의 태도는 평소 타인을 대해 왔던 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어머니 모화의 눈물과 포용으로 그 신분이 확인되자 낭이는 비로소 안심하고 옥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낭이는 또한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인 모화에게서 인정(人情)이라는 것을 느낀다.

사실 옥이의 존재는 모화의 확인 이전부터 낭이에게 저의 운명을 결정지어준 중요한 인물이었다.

낭이가 대여섯 살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 병으로 귀가 멀어지기 전이라 '옥이' / '옥이' 하고 몹시 그를 따르곤 했었다. 그러던 것이 옥이가 절간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낭이는 자리에 눕게 되어 꼭 삼 년 동안을 시름시름 앓고 나더니, 그 길로 귀가 멀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귀가 어느 정도로 먹었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 두 번 그의 어미를 향해 어눌하나마,

"우, 옥이 어디 가아서?"

이렇게 묻은 적이 있었다.

"절에 공부하러 갔다."

"어어디, 절에?"(1권 83쪽)

오빠 옥이의 떠남으로 인해서 낭이는 오랜 병을 앓은 뒤 귀가 멀게 되면서도 어머니에게 어눌하나마 옥이의 행방을 찾는다. 이는 옥이가 가족과 제대로 된 인사 끝에 떠난 것이 아님을 나타내며, 낭이 또한 그런 옥이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옥이의 행방을 모르기는 제 어미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상심한 어린 낭이는 저 스스로 귀와 입을 닫아 병어리로 살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당 어머니를 둔 탓에 그 마을에서 더는 공부하지 못하고 옥이가 떠나게 되었으니, 그 여동생인 낭이 또한 함께 어울려 놀만한 또래는 없었을 것이다. 옥이와의 이별 때문에 유일한 대화 상대를 잃은 낭이가 결국 타인과의 소통의 의미를 잃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가 옥이가 돌아왔기 때문에 낭이는 다시 소통할 상대가 생긴다. 그리하여 낭이는 부엌에 들어서기를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이와 함께 할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가끔이나마 밥을 짓게 된다. 그럼 그리는 것이 활동의 전부였던 낭이가 옥이를 위해 자신에게 스스로 ‘마술적인 조력자’의 위치를 부여한 것이다.

「역마」의 주막 여주인 옥화는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장사꾼 손님 하나를 받는다. 예순도 넘어 보이는 늙은 체장수의 뒤를 따른 열대여섯 살 가량의 소녀 계연은 이내 옥화의 눈을 사로잡는다. 역마살을 풀기 위해 절에서 지내던 옥화의 아들 성기는 화개장을 앞두고 그곳에서만 펴는 책전을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의 주막으로 내려왔다가 계연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가름한 얼굴에 흰자위 검은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 띠어진 눈으로 집 앞에 늘어선 벼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체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체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손가락을 들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구례 산다더라. 이번에 어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 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체장수의 무남독녀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 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개골에서는 며칠이나 있겠다던고?”

“들어가 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리고 나서, 옥화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은 안 봐지?”

하였다. 계연(契妍)이란 이름이었다.

성기는 잠자코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 버렸다.

(중략)

“아이가 맘이 썩썩치 않고, 인정이 있고, 알미운 네가 없어.”

옥화는 자랑삼아 이런 말도 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반역지 비슷하게 거저 곧장 나만 믿겠다고, 아주 양딸처럼 나한테다 맡기구 싶은 눈치더라만……”

(중략)

옥화의 말투로 보아서 체장수 영감이 화갯골에서 나오는 대로 계연을 아주 양딸로 정해 둘 생각인 듯이 보였다. 다만 성기가 꺼릴까 보아 이것만을 저어하는 눈치 같았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옥화는 성기더러 장가를 들라고 권했으나 그는 응치 않았고, 집에 술 파는 색시를 몇 차례나 두어도 보았지만 색시 쪽에서 간혹 성기에게 말썽을 내인 적은 있어도 성기가 색시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는 일은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번에도 옥화는 그녀로 하여금 성기의 미움이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듯한 눈치였다.(2권 106-109쪽)

의할머니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과의 하룻밤 인연을 지금껏 간직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옥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옥화가 구름 같이 떠도는 중과의 인연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 또한 그 사이에서 성기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기 또한 제 자식을 의지하고, 계속 곁에서 옥화의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장가를 들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그러나 의도한 바나 다름없었던 술 파는 색시들과 성기의 관계가 진전이 없자, 옥화는 계연을 양녀라는 핑계를 대어 가족의 일원으로 들여놓으려 하기에 이른다. 계연을 바로 성기의 ‘마술적인 조력자’로 삼은 것이다. 그리하여 세숫물을 놓는 것은 물론이요, 송늬 그릇 챙기기, 밥상 차리기, 수건 찾아주기, 책전으로 점심 나르기 등 이미 성기의 아내나 다름없는 시중을 계연에게 들게 하는 것이다.

「무녀도」의 낭이가 자발적으로 조력자가 된 것에 비해, 「역마」의 계연이 옥화에 의해 조력자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낭이는 육이에게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을 찾으려 하지 않았지만, 계연은 옥화에 의해 자신의 역할을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프은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만족스러운 발달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이 갈망이 정상적인 성애(性愛)의 한 요소로 남는다는 것이다.⁵³⁾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랑이 충분하다 해도 그 이면에 두려움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모화가 낭이에게 지극하고, 옥화가 성기에게 지극한 것은 아이들이 언젠가 떠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낭이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방 안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성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갑갑하면서도 미움 받기가 싫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에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을 말한다. 정신적 건강과 성숙의 기반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애착을 발달시키고 궁극적으로 종합⁵⁴⁾하는데 있다. 그러나 애정은 있으되 지나친 방임과 간섭은 오히려 아이들을 집착하게 하여 무력과 의존을 느끼게 한다. 방임 아래 자란 낭이는 스스로를 가두다 다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옥이를 사랑함으로써 무력함에서 벗어나려 하고, 간섭 아래 자란 성기는 귀찮게 굴지 않으면서도 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연을 사랑함으로써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2) 아버지 부재가 낳은 성장통

어머니 중심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는 달리 「무녀도」와 「역마」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무녀도」의 옥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화가 아직 모화 마을에 살 때, 귀신이 지피기 전” 만난 “어떤 남자”(2권 82쪽)라는 짧은 설명이 전부이다.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혼인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 떳떳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옥이는 태어나면서 제 부모에 의해 두 개의 명에가 썩워진다. 하나는 사생

53) E. 프로프, 『사랑의 기술』, 63-64쪽.

54) 위의 책, 67쪽.

아요, 다른 하나는 무당의 자식이라는 것이다. 그 멩에를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난 옥이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됨으로써 저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를 찾게 된다.

「역마」에서 성기의 아버지는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2권 106쪽)이다. 옥화나 할머니는 그런 성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 원망이 없다. 성기 또한 특별히 그리워하지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계연과의 이별 후 크게 앓았다가 일어나는 성기에게 옥화는 강원도 쪽으로 가보겠냐는 질문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어렵듯이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음을 내비친다. 하지만 성기는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옥이나 성기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외면적으로는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아왔을지언정 그들은 이를 오래 마음에 두어 원망하지도 한탄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재는 이미 자신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결론이 난 사실이기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두 사람은 저들 스스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 옥이는 자신이 찾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독실한 믿음으로, 성기는 어디론가 떠나 보고 싶다는 단 하나의 소망으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안배된 인연은 결국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다. 모화는 남편 없이 홀로 옥이를 낳은 뒤 귀신이 지퍼 무당이 되었고 그 뒤 다른 사내와의 사이에서 낭이를 낳았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옥이는 미국으로 가기 전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낭이와 연이 뭉인다. 옥화는 제 아버지처럼 짧은 인연으로 떠나가 버린 남편으로도 모자라 시천역이 든 성기만은 곁에 두고자 계연을 맡아 제 아들과 가까워지게 하려 애쓴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근친애라는 시련 과정을 거쳐 결국 옥이와 성기가 원했던 종착지로 그들을 인도한다. 옥이는 현 목사와 미국으로 가는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고, 성기는 정착마저도 가능케 했을 계연과의 짧은 연을 접고 회생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호되게 앓은 뒤 엿판을 메고 밭길 닿는 대로 길을 떠난다.

딸인 낭이와 계연은 아버지의 의미 자체가 아들들과 다르다. 옥이와 성기의 아버지가 아들들의 존재 자체에도 관심이 없고 성장과정에도 전혀 관여가 없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 낭이와 계연의 아버지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옥이가 돌아오기 전, 모화에게 곳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낭이를 찾아오는 이는 오로지 아버지뿐이다. 봄과 가을이면 잊지 않고 다녀가는 아버지는 낭이에게 유일한 바깥의 출구요, 다른 세상으로 그녀를 데리고 나가 줄 길잡이이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모두를 잃고 홀로 누워 있던 낭이에게 찾아온 아버지는 나귀 한 마리를 몰고 오고, 낭이는 그 나귀를 타고 세상으로 떠난다. 낭이를 수국 꽃님으로 모시던 어머니는 자신을 대신하여 수국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도입부의 낭이는 결말부에서 떠난 그대로 길을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를 앞세우고 나귀 위에 탄 채 “남자 하인과 그 상전의 따님 같이도 보”(1권 78쪽)이는 행색으로 ‘나’의 집 대문에 들어선다.

계연의 아버지는 애초부터 타고난 떠돌이요, 이제는 나이 들어 정착을 하려 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다 자란 큰애기인 계연을 이끌고 다시금 장터를 떠돌지 않으면 안 되는 체장수이다. 어머니의 존재가 아예 언급되지 않은 계연에게 있어 늙은 아버지는 하나뿐인 가족이요, 자신을 거두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아버지와 함께 화개장터에 찾아든 계연은 성기의 짝으로 점찍은 옥화의 거둠 요청과 안심하고 딸을 부탁할 수 있는 곳이면 굳이 저어할 이유가 없는 아버지의 편의를 일치하여 옥화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자신이 젊었을 때 입던 옷도 내주며 어머니처럼 대해주는 옥화와 통명스럽지만 잔정 많은 성기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계연이지만, 제 속내 한 번 시원하게 밝혀보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떠밀리듯 그들과 헤어지게 된다. 도입부에서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와 찾아왔던 계연은 결말부에서 슬픔에 잠긴 채로 아버지와 둘이서 길을 떠난다.

앞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언급하며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구속의 화신이며 어머니는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의 전형이라는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 말은 아버지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옥이와 성기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현실적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머니에게 양면가치(兩面價值)⁵⁵⁾의 감정을 갖는 대신 스스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들을 찾는다. 옥이의 경

55)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동시에 미워하는 것.

우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기는 ‘아버지처럼 떠남’이다.

2. 신앙적 갈등과 근친애

1) 샤머니즘과 욕망의 향방

「무녀도」와 「역마」에서 갈등의 중심 요인은 바로 신앙의 문제이다. 종교적 갈등이 직접 표출되는 「무녀도」에 비해 「역마」는 종교에 의지한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 결정을 좌지우지할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 주어져 있다.

경주 출신인 김동리는 어려서부터 무당과 곁을 많이 보고 자랐다. 그는 샤머니즘과 자신의 문학이 맺어진 사연을 두 가지로 들고 있다. 그 첫째는 민족의식이요, 둘째는 인간관 문제라 하였다.

우리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열과 녀은 무엇일까. 나는 우선 그것을 찾기로 했다. 그 방법으로 나는 우리같이 불행하지 않은 중국인이나, 서양인의 그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 유교 혹은 기독교란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에 필적하는 우리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유교도 기독교도 우리에게 들어오기 이전의 상고시대로 소급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내가 다시 만난 것이 샤머니즘이었다.⁵⁶⁾

김동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열과 녀을 찾는 길을 샤머니즘에서 찾았다. 미신으로 전락된 샤머니즘을 종교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 그는 다른 완성된 종교와 대비시키는 길을 취하였다. 그는 샤머니즘을 가장 날카롭게 미신으로 몰아붙인 기독교를 택함으로써 샤머니즘의 종교적 본질과 기능을 긍정적인 면에서 그려냈다.

샤머니즘의 인간관은 반신적(反神的)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여신적(與神的)이랄까, 신

56) 김동리, 「나의 문학과 샤머니즘」, 『文學思想』 제170호, 1986. 12, 161쪽.

을 내포한 인간인 것이다.

내가 샤머니즘을 택한 것은, 그냥 단순히 민족혼의 뿌리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기말의 벽에 부딪친 근대인간주의를 지양하고 한국적인 새로운 성격의 인간을 그린다는 내 나름대로의 문학적 의도도 곁들여져 있었던 것이다.⁵⁷⁾

샤머니즘은 신과 인간의 관계이다. 우주의 근본 자체가 신인 신본주의도 아니요, 존재의 근본 자체가 인간인 인본주의도 아니다. 자연 속에도 신이 있고 사람 속에도 신이 있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다.

「무녀도」의 모화는 귀신이 지피 무당이 된 강신무(降神巫)이다. “경주 고을 일원을 중심으로 수백 번의 푸닥거리와 굿을 하고, 수백 수천 명의 병을 고쳐” 왔으며, 고을 사람들 또한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게 보이려는 생각보다 으레 모화에게 찾아”가고 “모화의 푸닥거리나 푸념이 의원의 침이나 약보다 훨씬 반응이 빠르고 효험이 확실하고 부담이 적”(1권 86쪽)다고 생각한다. 귀신이 지피기 전의 모화의 행적은 욕이를 낳은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으로서의 삶은 모화에게는 숙명처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 욕이는 모화에게 무당으로서의 긍지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욕이는 모화의 무당 일을 ‘죄’라고 단언한다. 물론 그 죄의 기준은 ‘세상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행적이 적힌 ‘신약전서’에 의거하고 있다. 욕이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자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이자 무당인 모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뿐인 것이다.

“오마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네다. 오마니 이것 보시오. 마태복음 제구장 삼십이절이옵시다. 저희가 나갈 때에 사귀 들러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다려오매, 사귀가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1권 86-87쪽)

욕이의 눈에 비치는 모화와 낭이는 모두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주님’의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사귀 들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욕이는 옛날에 제가 떠나기 전까지는 멸짱했던 낭이가 병어리가 된 것을 병 때문이라 여기지 않고, 어미의 사귀가 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다.

57) 위의 책, 163쪽.

예수께서 무리들이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와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자 따라 하시니 사귀가 소리지르며 아이를 심히 오그러뜨리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거늘 오직 예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드디어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문자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 가라사대 기도 아니 하여서는 이런 따위를 나가게 할 수 없나니라. (마가복음 제구장 제이십오절-제이십구절)

그리하여 육이는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만 간절히 드리면 그 어미와 누이동생에게 들어 있는 사귀도 내어 쫓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1권 88-89쪽)

졸지에 ‘귀신 들린 죄인’이 되고 만 어머니 모화 또한 제 아들 육이에게 몹쓸 잡귀가 썩었다고 믿게 된다. ‘예수 귀신’에 대한 육이의 믿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깊고도 두터웠다. 따라서 모화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신령님께 푸념하고 주문을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화와 육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낭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갈등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다. 문밖 외출 없이 방에서 그림만 그리는 것이 활동의 전부인 낭이인 만큼, 분명 낭이 역시 모자가 서로 어긋나고 있을 때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애초부터 없기라도 한 사람인 양 자연스레 제외되어 있다.

신약성서⁵⁸⁾에 언급된, 병자에게 베푼 예수의 치유 기적은 마태복음만 해도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마태 4:24), 나병환자(마태 8:2-3), 열병(마태 8:14-15), 하혈병(마태 9:20-22), 소경(마태 9:27-30), 손이 오그라든 사람(마태 12:10-13), 절름발이와 곱배팔이(마태 15:30) 등 이루 셀 수가 없다. 예수는 그것뿐 아니라 죽은 여자아이(마태 9:18-25)마저도 그저 잠이 들었다며 다시 살려내기도 한다. 하지만 육이가 모화에게 굳이 집어 올려준 부분은 ‘사귀 들려 병어리 된 자’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는 육이에게 모화와 낭이가 어느 순간부터 동일시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같다. 육이의 눈으로는 ‘무당 사귀’가 든 모화나 ‘귀머거리와 병어리 귀

58) 「무녀도」에서 육이는 신약전서를 언급했지만, 이 연구에서 참조하고 있는 성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1978년에 발행한 『공동번역 신약성서 개정판』이다.

신'이 든 낭이나 사귀 들리기로는 마찬가지로의 존재인 셈이다.

하지만 낭이는 어떠한가. 낭이는 예수교인들을 찾기 위해 옥이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신약전서 책을 제가 맡아두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저를 향해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지”(1권 84쪽)어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지금까지 옥이 하나뿐이었으므로 어렸을 때처럼 어느 순간 제 곁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낭이는 매사에 무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옥이를 향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게 된다.

옥이가 이 지방 예수교인들을 두루 만나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야릇하게 변해진 것은 낭이의 태도였다. 그 호리호리한 몸매와 종잇장같이 희고 매끄러운 얼굴에 빛나는 굵은 두 눈으로 온종일 말 한 마디 웃음 한 번 웃는 일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은 채 옥이가 하는 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어 처마 끝에 희부연 종이 등불이 걸리고 하면, 피에 주린 모기들이 미친 듯이 떼를 지어 울고 날아드는 마당 구석에서 낭이는 그 열음같이 싸늘한 손과 입술로 옥이의 목덜미나 가슴팍으로 뛰어들곤 했다. 옥이는 문득문득 목덜미로 가슴팍으로 낭이의 차디찬 손과 입술을 느낄 적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으나 그녀가 까부러칠 듯이 사지를 떨며 다시 뛰어들 제면 그도 당황히 낭이의 손을 쥐어주며, 그 희부연 종이 등불이 걸려 있는 처마 밑으로 이끌곤 했다.

낭이의 태도가 미묘해진 뒤부터 옥이의 얼굴빛은 날로 창백해 갔다. 그렇게 한 보름 지난 뒤 그는 또 한 번 표연히 집을 나가고 말았다.(1권 90-91쪽)

존재감 없이 스스로를 감추고 있던 낭이는 제 의지를 드러내어 온몸으로 옥이를 향한 마음을 나타낸다. 어차피 낭이 자신은 모화의 신령님에도 옥이의 하나님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을 뿐더러 외부와 단절되다시피 살아왔으니만큼 세상의 시선이나 규범 역시 알지 못한다. 게다가 어머니 역시 ‘수국 꽃님 낭이 따님’으로 딸인 자신을 모셔왔던지라, 마음이 가는 상대가 제 이부 오빠라는 것은 낭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낮에는 종일 방 안에서 제 시선 안에 옥이를 가두던 낭이는 밤이 되면 옥이에게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싸늘한 손으로 옥이를 끌어안고 차디찬 입술로 입을 맞춘다. 그때마다 옥이는 깜짝깜짝 놀라지만 왜인지 낭이에게 매몰차게 굴지는 못하고, 제 온기를 나눠주듯이 낭이의 손을 잡아주며 처마 밑 종이 등불 아래로 이끌어준다.

처마 밑의 희부연 종이 등불은 옥이가 돌아온 이후로 매달아놓기 시작한 것이다. ‘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적에 맨 처음으로 생겨나라고 명한 것(창세기 1:1-5)⁵⁹)이다. 어머니와 동일시된 여동생의 성적 접촉에 옥이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빛을 창조하여 어둠과 분리하는 것으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해낸 기독교의 교리를 따르며, 믿음을 시험하듯 저를 붙들고 있는 모태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빛의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이의 얼굴빛이 날로 창백해진다는 사실은 낭이의 감정에 그 또한 감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낭이에게 매몰차게 굴지 못하고 결국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옥이 또한 흔들리고 있음을 낮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금기는 공포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오히려 충동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물을 뒤집어엎는 일은 그 자체에 매력이 있기 때문⁶⁰)이다. 보름 동안 버텼던 옥이가 다시 집을 나가고 만 점 또한 결국 저 혼자만의 신앙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 신앙에 동참하며 믿음의 깊이를 돈독하게 해줄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다.

그러나 옥이의 두 번째 가출로 인해 모화와 낭이 모녀의 일체감은 오히려 더욱 강해진다.

모화는 옥이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곁에 누워 있는 낭이를 흔들어 깨우더니 듣기에도 음울한 목소리로,
“옥이가 언제 온다더누!”

물었다. 낭이가 잠자코 있으려니까,

“왜 옥이 저녁 밥상은 보아 두라고 했는데 없노?”

하고 낭이더러 화를 내었다. 모화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한 빛으로 밤중마다 부엌에 다 들기름 불을 켜고 부뚜막 위에 옥이의 밥상을 차려놓고는 치성을 드리는 것이었다.

(중략)

모화는 혼자서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일어나 춤을 추고 갖은 교태를 다 부리며 완연히 미친 것같이 날뛰었다. 낭이는 방에서 부엌으로 난 봉창 구멍에 눈을 대고, 숨소리를 죽여 오랫동안 어미의 날뛰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가 별안간 몸에 한기가 들며 아래턱이

59)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1988년, 구약 부분 이하 출처 동일.

60) G. 바파이유, 앞의 책, 52쪽.

달달달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며 저고리를 벗었다. 치마를 벗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부엌에서, 딸은 방안에서 한 장단, 한 가락에 놀듯 어우러져 춤을 추었다. 그러한 어느 새벽, 낭이는(정신을 차리고 보니) 발가벗은 알몸뚱이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한 일도 있었다.(1권 91-92쪽)

육이에 대한 걱정으로 자다 일어난 모화는 곁에서 자던 낭이를 흔들며 깨운다. 모를 게 뻥한 육이의 행방을 묻고는 육이의 밥상을 보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낭이에게 화를 낸다.

그때까지 모화와 낭이의 관계는 보통 모녀간과는 달랐다.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낭이는 모화에게 단순한 딸이 아니라 ‘용신님이 친히 맡기신 수국 꽃님’이다. 낭이는 지금껏 저 하고 싶은 대로 종일 그림만 그리며 살았지 어머니 대신 살림을 돌본 적이 없었다. 모화 또한 그런 낭이에게 여름철이면 내내 복숭아를 사다 안겨주고, 따님이 부른다는 이유로 돌연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정성껏 대했다.

그러나 낭이를 대하는 모화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모화가 수국 꽃님이라는 낭이의 신분을 잊은 것도 아니요, 육이에 대한 걱정으로 낭이에 대해 소홀해졌기 때문도 아니다. 이는 육이처럼 모화 역시 딸 낭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육이의 행방을 묻고 저녁 밥상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은, 진작 미리 알아두고 챙겨두지 못한 자신을 소리 내어 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화에 대한 동일시 현상은 낭이에게도 나타난다. 육이를 위해 치성을 드리는 모화를 봉창 구멍으로 지켜보던 낭이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어미처럼 몸을 떨며 신내림이라도 받은 양 한밤 내내 춤을 춘다. 이 장면은 모화의 샤머니즘에도 육이의 기독교에도 구애받지 못하고 한 발짝 물러나 보고만 있던 낭이가 순간 모화와 동일시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낭이 역시 강신무인 모화의 뒤를 이어 세습무(世襲巫)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61) 김미영은 이 장면의 바로 앞인, 육이가 지방의 예수교도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낭이가 야릇하게 변하여 그에게 달려드는 장면에서 “얼음같이 싸늘한 손과 입술”이라는 표현을 들어 이미 낭이가 인간이 아니라 무녀로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영, 「김동리 문학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한국전 이전에 발표된 평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84호, 한국어문학회, 2004, 166쪽.)

그러나 낭이가 완전한 무당으로서 모화와 온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낭이가 병어리라는 점이 문제이다. 무당은 사제가 되어 공물과 기도로 신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주의(呪醫)가 되어 주문으로 병을 고쳐야 하고, 예언자가 되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는 길흉을 점쳐야 한다. 그러나 병어리인 낭이로서는 (모화와 육이를 제외한) 타인과의 소통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미 성적 관계를 가진 오빠 육이의 향후 행방에 따라 그녀의 행동 또한 달라질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도 육이가 떠나자 바로 병에 걸려 오래 앓은 후 병어리가 되었고, 육이가 처음 집을 나간 이후 언제든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미 근친의 금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육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모화는 주문을 외우며 부엌에서 몰래 육이의 성경책을 태운다. ‘예수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 귀신 책’을 없애는 것이다. 육이는 방에서 부엌으로 난 봉창 구멍을 통해 모화의 행동을 지켜본다. 낭이가 치성드리는 모화를 훑쳐보며 그 모습에 동화되어 한밤 내내 춤을 추었던 것과는 달리 육이는 가위눌린 것처럼 간신히 긴 숨을 내쉬며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선다. 모화의 신령에 감응했던 낭이와는 달리 육이는 지금 제 자신이 상상도 못할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 신앙 또한 시험받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모화는 소복 단장에 쾌자까지 두르고, 온갖 몸짓 갖은 교태를 다 부려 가며 손을 비비다, 절을 하다, 덩싯거리며 춤을 추다, 하고 있다. 부뚜막 위에는 깨끗한 접시불(들기름의)이 켜져 있고, 그 아래 차려진 소반 위에는 냉수 한 그릇과 흰 소금 한 접시가 놓여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금 막 그 마지막 불꽃이 나불거리고 난 새빨간 파란 연기 한 오리가 오르는 『신약전서』의 두꺼운 표지는 한 머리 이미 파리한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화는 무엇에 도전이나 하는 것처럼 입가에 야릇한 냉소까지 띠우며, 소반에 없던 접시의 소금을 집어, 인제 연기마저 사라진 새까만 재 위에 뿌렸다.

(중략)

모화의 음성은 마주(魔酒) 같은 향기를 풍기며 온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 보석 같은 두 눈의 교태와 쾌자자락과 함께 나부끼는 손짓은, 이제 차마 더 엿볼 수 없게 육이의 심장

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옥이는 가위눌린 사람처럼 간신히 긴 숨을 내쉬며, 뛰어 일어났다. 다음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뛰어나온 그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반 위에 차려 놓은 냉수 그릇을 집어들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냉수 그릇을 집어들기 전에 모화의 손에는 식칼이 번득이고 있었고, 모화는 옥이와 물그릇 사이에 식칼을 두르며 조용히 춤을 추는 것이었다.

(중략)

이때, 모화는 분명히 식칼로 옥이의 면상을 겨누어 치려 하였다. 순간, 옥이는 모화의 칼날을 왼쪽 귓전에 느끼며 그의 겨드랑이 밑을 돌아 소반 위에 차려 놓은 냉수 그릇을 들어서 모화의 뺨에다 그릇째 끼얹었다. 이 서슬에 접시의 불이 기울어져 봉창에 붙었다. 옥이는 봉창에서 방으로 붙어 들어가는 불길을 잡으려고 부뚜막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물 그릇을 뒤집어쓰고 분노에 타는 모화는 옥이의 뒤를 쫓아 칼을 두르며 부뚜막으로 뛰어올랐다. 봉창에서 방안으로 붙어 들어가는 불길을 덮쳐 끄는 순간, 뒷등어리가 찌르르하여 획 몸을 돌이키려 할 때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은 허영계 이를 악물고 웃음 웃는 모화의 품속에 안겨져 있었다.(1권 93-95쪽)

옥이에게 씌인 예수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모화의 모습은 이전에 묘사되어온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에로틱하다. 이는 옥이가 처음 집을 나가게 된 계기인 신주상 앞에서의 푸념과도 다르다. 옥이를 대하는 모화의 태도는 그간 아들의 귀향에 울음을 터뜨리고,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며 걱정하던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벗어던진 무당의 모습이다.

잠에서 깨었을 때 옥이는 어머니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과 낭이 사이를 보았다. 낭이는 옥이의 건너편에 분명 형체로 자리하고 있을 테지만 이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완전히 그녀의 존재감을 잃는다. 병석에 누운 옥이가, 모화가 밖에 나가고 없을 때 성경 한 권만 갖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는 단 한 장면 외에는 어디에도 더 이상 낭이는 언급되지 않는다. 제 어미와 오빠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불을 내고 칼로 찌르고 결국 옥이가 죽고 슬픔을 못 이긴 모화가 내내 징과 팽과리를 울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굴어도, 분명 그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 했을 낭이는 애초부터 그 곁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과 감정 자체가 지워져 있다.

왜냐하면 낭이는 이미 모화와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모화가 예수 귀신 책임 신

약전서를 태움으로써 그들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자 그 후에 취해지는 행동은 교태를 부리며 유혹하듯 나무끼는 손짓이다. 이에 욱이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제 신앙의 근본인 성경의 소실과 여동생과 애정을 나눈 제 현실을 통감하여 분노하고 절망했기 때문이다.

욱이는 모화에게 칼로 세 군데를 찢리지만 용케 살아남는다. 그러나 “욱이의 병은 이 세 군데 칼로 맞은 상처만이 아니었”(1권 95쪽)기 때문에 그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간다.

욱이는 모화가 손을 잡고 울며 바라는 것을 물을 때면 그저 고개를 돌리지만, 모화가 없을 때는 제가 먼저 낭이의 손을 잡고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점을 말한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욱이는, 모화가 곁에 없을 때의 낭이는 제 어미와 동화된 사귀 들린 병어리가 아니라 저와 애정을 나눈 누이이며 연인임을 비로소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역시 낭이의 반응은 묘사되지 않는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는지, 웃었는지 울었는지, 하다못해 제 손을 붙든 욱이의 손을 마주잡아 주었는지조차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욱이는 그리워하던 현 목사를 만나 자신 덕분에 경주에 교회가 들어서고 온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토록 원하던 성경 한 권을 얻는다. 성경책을 받아 가슴에 품은 욱이의 눈에는 그제야 비로소 눈물이 맺힌다. 그 눈물에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은 지켰지만 가장 소중한 한 마리 양(모화와 낭이)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없었던 목자(루가 15:4-7 참조)로서의 회한이 담겨 있다.

모화가 ‘예수 귀신’에 분노하는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긍지를 가지고 해왔던 무당 일을 ‘죄’로 몰았으며, 둘째, ‘새로 들어온 예수교도’들이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라고 ‘비방하고 구박’했으며, 셋째, 그 무엇보다도 결국 ‘예수 귀신에 씌인’ 덕에 아들 욱이가 죽었기 때문이다.

모화는 청해오는 곳을 거절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아픈 욱이를 간호하지만 자신이 욱이를 칼로 찢른 것에 대한 죄책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사람들 또한 멀쩡하던 욱이가 갑작스레 아팠고 몇 달 뒤에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술잔을 들고 모화를 위로하러 방문할지언정 그녀를 의심하지도 탓하지도 않는다.

무당으로서의 모화는 욱이를 피투성이로 만들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귀

신'을 막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간다. 결국 육이는 죽었고, 자신에게 고통과
푸닥거리를 부탁하러 다니던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가 '양국놈들의 요술단'에 심
취한다. 하지만 모화는 이 모든 상황을 웃어넘긴다. 왜냐하면 '신령님'은 모화 자
신에게만 잡귀를 쫓을 '특수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모화의 신령님은, 육이
가 믿었던 '질투하는 신이요,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출애굽기 20:5) 엄격한 신이 아니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별다
를 것도 없고 대수로울 것도 없는 고목이요, 물이요, 산이며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할 수 있는"(1권 82쪽) '님'이었기 때문에 모
화 또한 조바심 없이 죄락과 재생을 감내하고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기소에서 몸을 던져 죽은 김씨 부인을 위해 모화는 마지막 곳을 치
른다. 이 모화의 곳 장면은 작품 도입부의 낭이가 그린 무녀도 그림의 묘사와 일
치한다.

뒤에 물러 누운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널따랗게 흐르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
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아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
습한 밤중이다. 강가 모랫벌엔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이 앉아 무
당의 시나위 가락에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 온
듯한 피곤에 젖어 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혼령으로 화한
듯 가벼이 쾌자 자락을 날리며 돌아간다.(1권 77쪽)

곳이 열린 백사장 서북쪽으로는 김푸른 소 물이 깊은 비밀과 원한을 품은 채 조용히
굽이 돌아 흘러내리고 있었다(명주 꾸리 하나 들어간다는 이 깊은 소에는 해마다 사람이
하나씩 빠져 죽기 마련이라는 전설이었다).

백사장 위에는 수많은 엇장수, 떡장수, 술가게, 밥가게 들이 포장을 치고 혹은 거적을
두르고 득실거렸고, 그 한복판 큰 차일 속에서 곳은 벌어져 있었다.

(중략)

모화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의 사연을 한참씩 닦
두리하다가는 전악들의 젖대, 피리. 해금에 맞추어 춤을 덩실거렸다. 그녀의 음성은 언제
보다도 더 구슬뿔고, 몸뚱이는 뼈도 살도 없는 율동(律動)으로 화한 듯 너울거렸고……
취한 양, 얼이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숨결은 모화의 쾌자 자락만 따라 오르내렸다.
모화의 쾌자 자락은 모화의 숨결을 따라 나부끼는 듯했고, 모화의 숨결은 한많은 김씨 부
인의 혼령을 받아 청승에 자지러진 채, 비밀을 품고 조용히 굽이 돌아 흐르는 강물(예기

소의)과 함께 자리를 옮겨 가는 하늘의 별들을 삼킨 듯했다.(1권 101-102쪽)

낭이는 어떻게 모화의 곳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그려내었을까. 그녀는 모화의 곳에 따라나선 적도 없고, 따로 가까운 동무가 있어 전해들은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모화의 일을 특별히 궁금해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낭이는 이미 모화의 신령에 감응하여 한 밤 내내 내림굿을 받듯 춤을 춘 적도 있으며, 동화하여 육이의 예수 귀신을 몰아내려 한 적도 있다. 죽어가는 육이의 모습,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으로 기(旗)를 만들어 단 모화가 내내 혼자 꾸밈하며 슬픔을 떨쳐내는 것을 낭이는 하나하나 그대로 눈에 새겨 넣었을 것이다.

낭이는 모화의 마지막 곳에 마지막으로 동화하여 이날의 유일한 증인이자 화자(話者)가 된다. 그리고 모화의 녀두리를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이별한다.

봄철이라 이 강변에 복숭아꽃 피그덜랑,
소복 단장 낭이 따님 이 내 소식 물어주소,
첫가지에 안부 묻고, 둘째 가…….(1권 103-104쪽)

「무녀도」의 도입부에서 모화의 예언처럼 꽃 피는 봄날 ‘나’의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든 낭이는 흰 옷 차림이다. 낭이는 이제 타인의 앞에서도 와들 와들 떨며 숨어들지 않고, 낮선 댁에 화객으로까지 머물게 되었다. 낮빛도 예전처럼 파랗게 질려 있는 대신 그저 옷빛보다 더 하얀 얼굴을 한 채, 들어도 듣지 않은 척 말할 수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듯 저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프롬은 신에 대한 사랑의 성격이 종교의 모계적 및 부계적 측면의 상대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부계적 측면의 특징은 ‘나’에게 신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신은 상벌을 주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선택한다. 하지만 모계적 측면에서는 다르다. ‘나’는 신을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를 구해주고 구제하고 용서⁶²⁾한다. 하지만 육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에게 선택받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62) E. 프롬, 『사랑의 기술』, 109쪽.

가 ‘귀신 들린’ 모화와 낭이 역시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반면 모화는 여신적 인간으로 자신 속에 신을 깃들이고 있다. 신과의 일체성으로 생활의 모든 행위에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샤머니즘이다. 그렇기에 모화는 ‘예수 귀신’이든 아들을 직접 구원하고 용서하려 한다. 하지만 육이는 신에 대한 사랑과 모화로 인하여 낭이로 이어지는 사랑을 분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근친애적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성숙한 사랑의 단계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민간신앙과 운명의 선택

「역마」는 민간신앙에 그 뿌리를 두어 역마살을 타고난 성기를 중심으로, 그 살을 풀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 육화의 노력과 그에 연계된 사람들과의 인연을 그리고 있다.

성기의 할머니가 당사주를 신봉하게 된 데에는, 할머니 자신의 인생역정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단 하룻밤의 인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긴 딸 육화만을 평생 의지하면서 신산한 삶을 살아야 했다. 할머니에게는 그 인연 또한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운명이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는 운명이라는 사실 또한 모두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팔자소관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더욱 당사주를 신봉하였을 할머니에게 외손자의 시천역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사주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무당이든 스님이든 도사든 찾아간 곳마다 모두 입을 모아 똑같은 소리를 하니 이야말로 누구를 원망할 수조차 없는 터이다. 평생 화개장터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아온 두 모녀에게 그 사주는 단순히 성기만의 것이 아니다. 남사당 청년과의 하룻밤 인연과 떠돌이 중과의 짧은 인연으로 대를 이어온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책임이자 살이기도 한 것이다.

성기는 열 살이 되자 글을 배운다는 핑계로 절에 가서 ‘중질’을 하게 된다. 「무녀도」의 육이가 제 미천한 신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열 살 나이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뒤로 한 채 절로 떠난 것처럼 「역마」의 성기 역시 평생 밭붙이지 못하고 떠돌 제 살을 풀기 위해 절로 들어가게 된다. 두 작품 모두 현재의 굴레를 벗

어나기 위한 공간으로 절을 택하는데, 그 이유는 불도가 보기 싫어 절간을 달아났다고 고백하는 옥이에게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불도야, 큰 도지……”(1권 85쪽)라고 의아한 듯 두둔하는 모화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김동리가 자신의 작품에서 대비 기능을 위해 샤머니즘을 미신으로 몰아붙이는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포용 기능을 위해 불교를 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무당의 아들인 옥이와, 머리를 깎고 승려로 만들 것은 아니지만 ‘중결’은 시키겠다는 성기를 두 말 없이 거두어 수년을 머물게 한 짧은 설명으로 나타난다.

비록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인제 역마살도 거진 다 풀려 갈 것이라고 할머니도 마음을 놓고, 성기의 짝으로 은근히 바라던 계연과의 사이도 날로 돈독해지는 평온한 와중이었다. 옥화는 계연의 왼쪽 컷바퀴에서 저와 같은 검정 사마귀⁶³⁾를 발견하게 된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늘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보는 드키 재출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2권 121쪽)

할머니가 생존했더라면 이내 밝혀졌을 가족 관계였겠지만 세상을 떠난 지금, 사실을 밝혀줄 이는 체장수 영감밖에 없었다. 하지만 옥화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다음날 바로 악양으로 가서 명도(明圖)를 부른다. 그 뒤, 체장수가 돌아오고 계연을 데리고 다시 떠나는 것을 배웅하면서도 옥화는 끝내 그가 자신의 친부이며 계연이가 이복동생인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물어 확인하지는 않는다. 당사주에 나타난 성기의 시천역을 믿듯이 옥화 또한 명도가 짚어준 것만

63) 홍성애, 김철웅, 민태홍은 「역마」의 「왼쪽 컷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왼손잡이」를, 유전으로 짐작되는 신체의 특성을 가지고서 핏줄을 확인하는 「핏줄 확인 모티프」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메밀꽃 필 무렵」이 혈연인지(血緣認知)의 경이적(驚異的) 순간에 작품이 끝나는 것과는 달리, 「역마」는 그로 인해 내용상의 큰 변환을 맞게 된다.(홍성애, 「現代小說에 나타난 江의 象徵性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8, 34쪽; 김철웅, 「김동리 초기 문학과 문학교육」,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9, 43쪽; 민태홍, 「메밀꽃 필 무렵」과 「역마」 비교 연구-두 작품에 내포된 근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50-51쪽.)

으로도 체장수와 자신의 부녀관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화가 악양의 명도에게 다녀온 뒤 계연과의 사이를 경계하자, 성기는 본래 심장이 약하기도 하고 미움 받기도 싫고 어머니가 노엽기도 하여 집으로 가지 않고 절에서 버틴다. 그러던 중 모처럼 내려온 집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계연과의 이별을 접하자 분노와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처음은 그저 쇠몽치로 돌연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같이 골치가 멍하며, 전신의 피가 어느 한 곳으로 쥘 모이는 듯한,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쫓긋이 당기어 올라가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들어 가는 듯한, 눈 언저리에 피어린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듯한,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치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 가는 듯한 하였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어 떨어질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것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려는 이 순간에 와서야 갑자기 심지에 불을 켜듯 확 타오를 마련이던가, 하는 것이 자꾸만 꿈과 같았다. 자칫하면 체면도 염치도 다 놓고 영영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이 목이 징징 우는 것을, 그러는 중에서도 이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식에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루 끝에 궁둥이를 짚듯 털썩 앉아 버렸다.

(중략)

조마롭고 어지럽고 노여움으로 이미 두 귀가 멍멍하여진 그에게는 다만 별때처럼 무엇이 왕왕 거릴 뿐 아무것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다.(2권 118-119쪽)

그러나 절망한 성기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제 모든 갈등의 원인제공자인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성기는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는 것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 필사적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성기는 병석에 눕게 된다.

붙잡지도 못한 채 계연을 떠나보내고 이루지 못한 사랑에 좌절한 성기는 보는 사람마다 회복을 거의 다 단념할 정도로 호되게 앓는다. 때문에 옥화는 감출 수만 있다면 평생 비밀로 하고 싶었던 진실을 성기에게 통정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알면서도 모질게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계연과의 이별에 대한 속사정을 알게 되자 성기는 도로 힘을 얻는다. 아버지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 마음 눌러둔 채 어머니의 곁에 머무르지도 않은 채 운명을 따라 어디든 가보고 싶은 데로 발길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빠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엇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영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 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걸음, 한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어.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2권 122-123쪽)

처음 성기에게 시천역이라는 자신의 사주는 단순히 할머니와 어머니의 근심이 빚어낸 걱정거리였을 뿐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이복동생이자 자신의 이모인 계연과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숙명으로 성기에게 다가온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저 스스로의 선택으로 시천역에 따르기로 결심함으로써 비로소 성기는 그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리하여 유일한 그의 족쇄였던 어머니의 주막이 시야에서 사라져 갈 무렵에는 노랫가락마저 흥얼거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계연과 사랑에 빠진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연의 아버지가 바로 성기의 외할아버지이며, 36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존재조차 몰랐던 큰 딸 옥화에게 작은딸 계연을 부탁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을 위한 필연으로 자리매김한다. 성기의 정착을 위해 계연이 필요했던 만큼 계연이 떠나게 된다면 성기에게는 더는 정착의 삶을 영위해야 할 의미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계연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요했고, 이에 밝혀진 어머니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이모라는 절대성으로 인해 성기의 삶은 따를 수밖에

에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3. 공간적 장치와 근친애

공간적 장치는 소설에서 공간의 구조는 물론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의 조건이 된다. 「무녀도」와 「역마」의 주된 공간적 장치인 집과 절 또한 통과제의의 공간으로서 유의미하게 읽혀진다.

비에른스는 통과제의란 인간이라는 씨앗을 성숙시켜서 완성시켜줄 어떤 상태의 시작이라 하였다. 즉 통과제의 자체가 통과제의를 거치게 될 대상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라는 것이다. 소년들의 통과제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세계, 즉 정신과 문화의 세계로의 입문을 내포한다.

통과제의는 일반적으로 ① 개인의 분리 혹은 격리(죽음의 제의), ② 모태회귀(태아 상태로의 귀환), ③ 재탄생(지옥으로의 하강 또는 천국으로의 상승)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묶인다.⁶⁴⁾

여기서는 「무녀도」와 「역마」의 주인공인 옥이와 성기가 첫 번째 개인의 분리 혹은 격리의 장소인 절과 두 번째 모태회귀의 장소인 집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재탄생의 경로를 찾아가는지 통과제의의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비밀 유지 공간으로서의 집

집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좌지우지하는 환경 그 자체이다. 즉, 인간 존재의 최초의 세계⁶⁵⁾인 것이다. 김동리의

64) S. 비에른스,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12-14쪽.

엘리아데는 통과제의를 그 대상자의 종교적·사회적 신분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의례와 구전교육으로 보았다. 시련을 겪은 후 대상자는 통과제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즉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65) G.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5, 118쪽.

「무녀도」와 「역마」에서도 집의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무녀도」에서는 모두 세 집이 언급된다. 도입부의 화자 ‘나’의 집과 무당 모화의 집, 그리고 옥이가 회상하는 이 장로와 현 목사의 집이다. 그러나 작품 내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외양이 묘사되어 있는 집은 모화의 집뿐이고, 나머지는 그저 가풍을 언급하거나 비교의 대상으로 인용된다. 모화의 집은 귀신이 지핀 모화가 저 살던 모화 마을을 떠나 여민촌에 정착하게 해준 곳이고, 어린 옥이와 낭이가 함께 자랐으며, 유랑하던 옥이가 현 목사를 따라 미국에 가기 전 기어이 찾아오고야 말았던 어머니의 집이자 고향이다.

그것은 한 머리 찌그러져 가는 묵은 기와집으로 지붕 위에는 기와머섯이 퍼렇게 뻗어 올라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집 주위는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린 채 옛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의 공기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빗물이 고이는 대로 일년 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묻힐 만큼 거뭇게 엉키어 있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고 움칠거리며, 항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굴 같기만 했다.

이 도깨비굴같이 낡고 헐린 집 속에 무녀 모화와 그 딸 낭이는 살고 있었다.(1권 79쪽)

마을 한구석에 있는 모화의 집이 그 기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될 수 있는 이유는 모화가 무당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화와 낭이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한 그곳은 여전히 모화의 집이고, 곳과 집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들를 수 있는 무당의 집이다.

모화의 집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인위적인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집이다. 모화가 모시는 신령님이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차이는 옥이와 마을 사람들과의 대응에서 드러난다. 옥이는 처음 모화를 만나기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도 모르게 자신이 머물렀던 현 목사와 이 장로의 집과 비교하며 몹시도 당혹스러워 한다.

옥이가 어머니 집이라고 찾아온 곳은 지금까지 그가 살고 있던 현 목사나 이 장로의 집보다 너무나 판 세상이었다. 그 명랑한 찬송가 소리와 풍금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와,

모여 앉아 기도를 올리고, 빛난 음식을 향해 즐겁게 웃음 웃는 얼굴들 대신에, 군데군데 헐려가는 쓸쓸한 돌담과, 기와머섯이 퍼렇게 뻗어 오른 묵은 기와집과, 영킨 잡초 속에 꾸물거리는 개구리 지렁이들과, 그 속에서 무당 귀신과 귀머거리 귀신이 각각 들린 어머니 딸 두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흡사 자기 자신이 무서운 도깨비굴에 홀려 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새삼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1권 90쪽)

이미 아버지의 공간에 익숙해진 옥이는 제가 열 살 때까지 함께 살았던 어머니의 공간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혈육의 정 때문에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런 옥이의 행동에는 머지않아 현 목사를 따라 이 집을 떠나게 된다는 예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화의 집은 옥이가 완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 통과제의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옥이에게 있어 모화의 집은 피안으로의 여행을 위해 제 믿음을 시험받는 광야이다. 세례를 받은 예수가 40일 간의 단식을 끝내고 난 뒤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았듯이(마태 4:1-9), 옥이는 도깨비굴 같은 고향집에서 귀신 들린 어머니의 모정과 여동생과의 근친애로 발이 묶인다. 그러나 옥이는 집의 외양과 모화 모녀의 모습에 놀라기는 하였으나, 생활에 있어 불편함은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화의 모정과 낭이의 애정은 그가 늘 갈구하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를 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모화와의 믿음에 관한 불일치와 낭이와의 근친애에 대한 고뇌로 두 번이나 집을 나갔다가도 다시금 집으로 되돌아오고야 한다.

옥이에 비해 마을 사람들은 모화의 집을 무당의 집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필요할 때는 거리낌 없이 드나든다. 곳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주 방문 앞까지 들어서며 그녀를 부르고, 이웃들은 옥이가 죽은 후 집에 틀어박혀 징과 팽과리를 울리며 푸념으로 일관하는 그녀를 찾아와 술잔을 권하기도 한다.

물론 신과 소통하는 무당인 모화에 대한 경계가 없을 수는 없다. 근본을 문제삼는 이들 때문에 어린 옥이를 순조롭게 공부시키기가 어려워 졸지에 이산가족이 된 과거를 보아서도 알듯이 모화의 가족은 사회의 약자에 가깝다. 그러나 마을 한구석, 도깨비굴 같은 제 집 안에 있는 모화는 오히려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결국은 무당이라는 틀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육이와 마을 사람들에 비해, 낭이에게 있어 모화의 집은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미천하지만 두려움을 자아내는 존재인 무당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일말의 불평이나 불편도 없이 그림만을 그리며 어머니의 집을 지키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빠 육이와의 근친애에 뛰어든다. 모화가 육이를 칼로 찌르는 그 상황에 함께 했으며, 마지막 굿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화를 함께 느낀다. 낭이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모화의 집 안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병어리라는 장애와 육이에 대한 근친애, 이 두 가지 제약으로 모화를 따라 무당의 길을 따를 수 없던 낭이는 작품의 말미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제약에서 모두 벗어난다.

열흘쯤 지난 뒤다.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 가게를 보고 있었다던 체수 조그만 사내가 나귀 한 마리를 몰고 왔을 때, 그때까지 아직 몸이 완쾌하지 못한 낭이가 쨍한 눈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내는 낭이에게 흰죽을 먹이기 시작했다.

“아버으이.”

낭이는 그 아버지를 보자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불렀다. 모화의 마지막 굿이(떠들던 예 언대로) 영감을 나타냈는지 그녀의 말소리는 전에 없이 알아들을 만도 했다.

다시 열흘이 지났다.

“여기 타라.”

사내는 손으로 나귀를 가리켰다.

“.....”

낭이는 잠자코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귀 위에 올라앉았다.

그네들이 떠난 뒤엔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면 그 무성한 잡풀 속에서 모기들만이 떼를 지어 울었다.(1권 104쪽)

모화가 마지막 굿을 통하여 져값을 치른 덕에 낭이는 다시 목소리를 찾는다. 귀도 제법 들리는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나귀 위에도 올라앉는다. 그러나 낭이에게는 스스로를 붙들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오빠 육이도 어머니 모화도 죽었고, 금기를 저지르고 얻은 아이도 유산되었다.⁶⁶⁾ 육이가 죽었을 때는 그래도

66) 「무녀도」에는 낭이의 유산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본문에서 비록 파리하다고는 하지만 “매끄러운 얼굴에 빛나는 굵은 두 눈”(1권 90쪽) 등으로 낭이의 외양을 묘사하는

곁에 모화가 있었지만, 모화가 죽고 아이마저 유산되었을 때는 낭이 곁에 아무도 없었다.

모화의 집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낭이로, 모화의 집의 진정한 주인 또한 바로 낭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낭이는 어머니의 집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 모화의 집은 무당의 집이기 때문에, 무당의 길을 걷지 않을 낭이는 떠나야 한다. 그래서 낭이는 집을 떠나 아버지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육이에 이어 낭이가 떠남으로 인해 모화의 집은 통과제의의 역할을 마치고 문을 닫는다.

반면 「역마」에서 옥화의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없이 푸근한 공간이다. 기다려주는 어머니가 있는 집이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에 자리한, 굳이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은 화개장터의 주막집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 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 뭉고 멧들어진 춘향가 판소리 육자배기들, 남사당 여사당 협률(協律) 창극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으레 재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관습과 전례 등이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옥화의 주막은 사람들이 호의와 동정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죽고, 돌아올 길 망연한 남편을 기다리며 총각 아들 하나만을 의지한 채로 옥화는 주막을 꾸려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호의와 동정을 옥화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서 받고 있다. 노자가 딸이거나 행장이 불비할 때면 사람들은 옥화를 찾아가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얻는 것이다. 언제나 집에서 자신들을 기다려주는 어머니를 대하듯 돌아올 때 회계한다는 말로 그들 또한 옥화에게 기다림을 원한다. 그러므로 옥화는 그저 가엾기만한 흠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베풀어주는 모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 성기의 입장은 다르다. 어머니 옥화의 유일한 가족이자 애정의 대상인 성기는 오히려 이 집을 떠나 세상을 훨훨 날다니는 것이 소원이다. 바꾸어

것으로 볼 때, 그녀가 갑작스러운 병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낭이가 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단지 어머니나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탓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완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말하면 떠날 수 없는 성기의 현실에서 어머니의 집은 그에게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다.

어려서부터 ‘중질’과 화개장에서만 펼치도록 한 책전 등의 노력 끝에 결국 옥화가 생각해 낸 일은 세간의 가족 구성에 빗대면 모자란 자신의 집안에 새로운 일원을 채워 넣는 것이었다. 장가를 들라고 권했지만 성기는 응하지 않았고 술 파는 색시를 두었어도 역시 성기 쪽에서 마음을 두지 않으니 무용지물이다. 그러던 중 마침 옥화의 주막에 운명처럼 나타난 체장수의 딸 계연은 그야말로 신붓감으로 안성맞춤이다.

체장수의 고향은 여수다. 젊어서는 친구 따라 구례에도 살았으며 목포로 광주로 전전하다 진도에서 늙어지자 도로 구례로 돌아오는 신산스런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 아내도 없고, 그렇다고 구례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두 식구 다 굶을 판이라 늙은 지금도 다 자란 큰애기인 계연을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 계연 또한 옥화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다지 집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듯한 인물은 아니다. 읍에서 외따로 떨어진 산기슭 밑에 이웃도 없는 오막살이 생활에 사실 별다를 애착이 생길 리도 없겠지만, 시기상 진도에서 태어났고 이후 구례로 옮겨가는 등 의지할 데 없이 객지를 떠돌며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장터를 전전해야 했을 계연의 팔자 또한 그리 심상하지는 않다.

두 사람은 성기가 꿈꾸던 대로 한평생 떠도는 삶을 살아왔지만 실상 그가 상상하는 것처럼 날개 단 듯 훨훨 다니는 그런 후련함을 누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계연은 입시로 머물게 된 주막을 기꺼워하며 망설임 없이 옥화를 어머니, 성기를 오빠라 부른다.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것은 물론, 성기의 점심 심부름과 자질구레한 시중 역시 개의치 않는다. 떠돌이 생활에 지친 계연에게 옥화의 주막은 모처럼 사람의 정을 느끼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계연은 옥화의 배다른 여동생이자 성기의 이모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옥화는 그 사실을 가슴에 홀로 묻은 채 아버지와 동생을 떠나보낸다. 성기와 계연이 서로 연정을 품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모시고 계연이를 동생으로 돌보며 자신의 집을 채웠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그러기엔 때가 늦었음을 안 옥화는 단호하게 두 사람의 인연을 잘라낸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군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을 누가 알간디, 인연 있음 또 불 터이지.”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끼며 말했다.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계연의 조그만 보따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 주며 하직을 하였다.

계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듯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너라.”

옥화는 계연의 머리를 쓸어 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계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영영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옥화가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등그스름한 어깨를 쓸어 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젠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럼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옥화에게 하직을 하였다.

“할아버지 거기 가보시고 살기 여의찮거든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옥화는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2권 119-120쪽)

어머니와 단 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서른여섯 해가 녹록하지 않았음은 당연하지만 옥화는 하룻밤 인연을 남기고 떠나버렸던 아버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떠나가고 발 닿으면 다시 들르기도 하는 장터 주막집에서 저 또한 짧은 인연을 가슴에 품고 자각 없는 기다림과 함께 성기를 키우다 보니 마음대로 쉬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평생 떠돌며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의 고향인 여수로 되돌아가려 하자 옥화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임을 예감하며 인사를 건네지만, 이에 대응하는 체장수의 답변은 실로 그답다. 서른여섯 해 전의 화개장터 인연이 이렇게 장성한 큰딸을 그 자리를 지키듯 남겼고, 또한 운명처럼 작은 딸을 맡기고 간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가 사그라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체장수이기에 무심코 던지는 그 인사는 적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그 인사를 듣고 나서 연이어 계연에게 던지는 옥화의 인사는 뻔히 보이는 아

이들의 감정을 부러 경계하고 모른 척 하며 떠남을 통보하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누그러져 있다. 옥화는 잘 가라고 하지만 곧 그와 반대로 또 오라고도 말한다. 다시 못 볼 것처럼 인사했던 চে장수에게도 고향살이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와서 함께 살자고도 말한다. 지금까지 자신의 집을 오고 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야깁없이 내주었듯이 옥화는 이별의 순간이 되어서야 언제든 두 사람이 돌아와도 기탄없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계연을 떠나보내고 호되게 앓으며 성기는 짧은 인연으로 주막을 스쳐갔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저 또한 제 살대로 떠돌 운명임을 다시금 재확인한다. 계연이 친이모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누구의 미움도 받기 싫다는 이유로 더는 제 행동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무녀도」의 낭이가 그랬던 것처럼, 시천역이라는 저의 운명과 죽을 만큼 괴로웠던 계연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제약으로 옥화의 집을 지킬 수 없었던 성기는 말미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제약에서 모두 벗어난다.

그리하여 성기는 계연이 찾아왔던 계절을 즈음하여 집을 떠난다. 세 갈래 길에서 집으로 나 있는 화갯골을 등지고 계연이 떠났던 구례 쪽을 등지며 아무와도 연관되지 않은 길로 향하는 것이다. 이로써 옥화의 집은 여전히 기다림을 지속하는 어머니의 집으로 남아 성기를 위한 통과제의의 역할을 마친다.

옥이와 성기에게 있어 집은 두 번째 과정인 모태회귀를 겪는 장소이다. 오래 집을 떠나 있던 옥이의 귀향은 종교적 문제와 마술자인 조력자를 자처하여 근친애를 이끌어낸 낭이 때문에 시련과 혼돈을 겪는다. 이는 옥이가 떠나기 전 어린 시절과도 다른 상황이고, 타인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 목사와 동행할 미국은 옥이가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와 지위를 획득할 곳이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서운 도깨비굴”(1권 90쪽)과 같은 모화의 집(67)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성기에게 있어 집은 어두운 이미지도 아니고, 오히려 어머니는 계연과의

67) S. 비에른느, 앞의 책, 44쪽

통과제의에서는 어머니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모두 공동(空洞)이나 어두움의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묘혈(墓穴), 동굴 또는 괴물 등은 항상 모태와 관계된다. 이런 종류의 환기는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상적 경험에 역행하고 죽음의 개념과 결부되는 것이므로 고통을 유발시킨다.

관계를 부추긴다. 하지만 계연이 어머니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챈 순간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력한 방해자가 되어 “어쩌면 저다지 야속”(2권 117쪽)하게 구는지 영문을 알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옥이가 죽음으로 재탄생한 것과는 달리 성기는 시련에서 새롭게 깨어나 운명을 따라 자유롭게 길을 떠난다.

2) 성장 공간으로서의 절

「무녀도」와 「역마」 두 작품에서 절은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성장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입문시킬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이다. 앞에서 집이 통과제의의 두 번째 과정인 모태회귀의 공간이었다면 절은 개인의 분리 혹은 격리의 공간이다.

그러나 입문자는 스스로 자신의 통과제의를 주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입문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즉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에 의해 주도된다. 미친한 제 신분 때문에 총명한 아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없자, 「무녀도」의 모화는 아홉 살 옥이를 절로 보낸다. 「역마」의 옥화와 할머니는 타고난 살을 때우기 위해 열 살 성기를 절로 보낸다. 어머니가 내세운 길으로의 명목은 일단 공부였으며, 아이들 또한 어머니의 뜻을 따라 절에서 생활한다. 절이라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삭발로 ‘정화’를 하고, 어머니와의 오랜 혹은 임시적인 격리에 들어간다.

비록 옥이와 성기가 불제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절이라는 종교적 공간에서 성장기를 보냈다는 것은 장소의 특성상, 기본적인 행동이나 마음가짐에서부터 보통 여염집과는 다르게 많은 제약 또한 따랐을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오랜 기간 절의 상좌 노릇을 했던 옥이의 “절간에서 불도가 보기 싫어 달아났”(1권 85쪽)다는 고백은 종교의 교리를 닮은 공간에서도 미처 채울 수 없었던 정신적인 허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나마 모화와 소식이 끊겼던 옥이는 절을 떠나 서울이며 평양이며 구경을 다니기라도 하였지만, 옥화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과 주막만을 오가야 했던 성기의 반경은 더없이 좁고 한정되어 있다.

쌍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는 시오 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협의 장려한 풍경이 언제 보나 그에게 길멀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손윗 동무들의 사랑에 끌려 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즘 와서는 매일같이 들리는 북소리, 목탁 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게 희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 이런 것까지 모두 싫증이 났다.(2권 105쪽)

결길 하나 없이 반복으로 점철된 생활에 질릴 대로 질린 데다 불경보다는 이야기책에 끌려하는 성기를 알기에 옥화는 제 주막이 있는 화개장에 책전을 내어 주지만, 이 책전 자체는 성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지 못한다. 성기가 있는 책전이 언급되는 부분 역시 계연이 밥 심부름을 오는 단 한 장면밖에 없다.

성장기의 오랜 기간을 절에서 보내며 무욕(無慾)을 중시하고 참선 수행의 길을 걸어왔던 옥이와 성기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이 낭이와 계연을 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감정을 끌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옥이는 낭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대어드는 낭이의 몸짓과 태도에 차마 밀어내지도 못한 채 고뇌하다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린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제 속내 한 번 편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 성기는 계연이 좋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는다. 계연이 원하는 먼경이나 찰떡 같은 물건을 사주는 것은 쉽지만 상냥한 태도로 대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부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성기는 나물 썰 겸 칠불암 구경을 시켜주라는 말에 들뜨면서도 괜히 옥화에게 툄툄거리고, 제 분을 이기지 못해 입을 꼭 다물거나 이웃 주막 놈팡이와 함께 노닥거리는 계연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으로 여물지 못한 제 마음을 표현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절은 성장 장소인 동시에 관계에 대한 단절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옥이와 성기는 몸은 성인이되 마음은 절에 맡겨진 그때로 멈춰진 채 어린아이처럼 덜 자라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옥이는 열다섯 이후 1년이 넘는 방랑생활도 겪었고, 기독교를 접하면서 낯선 이들을 상대로 전도도 했을 것이다. 전도는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이니 만큼 친화력이 필수이다. 기

독교의 교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박애는 될 수 있지만 연애는 아닌 것이다.

성기는 화개장터가 열릴 때면 책전에서 이야기책을 파는 장사꾼이다. 장사의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만 성기의 목적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말썽씨를 부리고 친근하게 매달려가며 장사 수완이 뛰어날 필요가 없다. 집에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줄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성기는 비록 이를 수 없는 소망이라 해도 떠나고 싶다는 꿈만을 꾸며 살아갈 수 있다.

앞서 통과제의에 대하여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문화에 따라서, 또는 통과제의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가 강조된다. 세 가지 형태의 통과제의는 같은 통과제의 속에서 병존하기도 하며, 혹은 이중의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⁶⁸⁾ 개인의 분리 혹은 격리의 공간인 절에서 「무녀도」의 육이는 자신을 편견 없이 사회에 통합시키고 「역마」의 성기는 개인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 자체의 목적은 아이들이 이후로도 계속 간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련의 의미인 것이다. 이후 어머니에 의해 통과제의에 입문한 육이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성기는 다시 어머니에 의해 절에서의 정화 시간을 마무리한다. 여기서의 변수는 낭이와 계연의 존재이다. 그녀들은 입문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두 번째 과정인 모태회귀의 단계에서 어머니와 동일시되거나 어머니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육이와 성기를 분리 혹은 격리 단계로 입문시킨 사람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욕구불만의 원망이 있다. 하지만 집 또한 그들이 거쳐야 할 단계이고, 어머니로 인해 드러난 낭이와 계연의 존재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욕구를 해소한다. 즉 육이와 성기는 낭이와 계연을 통해 미처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애정과 구속 아닌 관심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68) S. 비에른느, 위의 책, 33쪽.

IV. 김동리 소설에서의 근친애의 의미

근친애는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그리 두드러진 모티프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꽤 의미 있는 모티프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의 작품에는 근친애 모티프가 자주 표출된다. 「소년의 비애」(1917)는 근친애를 금지하는 가부장적 규범을 신교육의 열망에서 떨어져나가 가부장적 권위의 그늘로 들어가는 누이들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⁶⁹⁾ 「어린 벗에게」(1917)는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관념적인 근친애의 감정을 애정결핍증적 의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소년의 비애」와 「어린 벗에게」는 작가가 모든 애정의 근원은 모자의 애정, 형제자매의 애정과 같은 근친애에서 발생한다고 본 관점으로, 모든 애정의 동질화인 미의식이었다.⁷⁰⁾ 이 관점은 그의 「무정」(1917)에서도 세상의 여자들을 누이동생으로 여기겠다는 표현의 방식⁷¹⁾으로 드러난다.

김승옥의 「생명연습」(1962)에서는 비정상적이고 결핍된 윤리의식 강조,⁷²⁾ 임진왜란을 다룬 홍성원의 『달과 칼』(1993)에서는 윤리적 파탄의 극단적 양상 표현⁷³⁾에 근친애가 활용된다. 또한 혼례를 올린 종손과 그 사촌누이의 상피로 인해 차츰 불거져가는 이씨 가문 삼대의 굴곡진 삶을 다룬 최명희의 『혼불』(1996)과 삼대에 걸친 근친애의 종횡을 다룬 김진규의 『달을 먹다』(2007)에서는 이해와 오해의 미묘한 간극에서 엇갈리는 비극의 묘사를 위해 근친애적 요소를 넣었다.

특히 이효석⁷⁴⁾과 장용학⁷⁵⁾은 자신들이 왜 근친애를 문학의 소재로 삼았는지

69) 나병철, 「이광수의 성장과 가족 로망스」, 『비평문학』 제2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5. 11.

70) 권정호, 「춘원의 ‘어린 벗에게’ 소고(小考)-내용구조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2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5. 11.

71) 한승옥, 「정신분석비평적 관점에서 본 무정에 나타난 성욕의 의미」, 『어문논집』 제56호, 민족어문학회, 2007.

72) 김현주, 「김승옥 소설의 가족 해체 양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7.

73) 이승준,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홍성원의 ‘달과 칼’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4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74) 이효석의 근친애 소설로는 새어머니와 의붓아들의 관계를 다룬 「개살구」(1937), 형부와 처제의 관계를 다룬 「화분」(1939), 백모와 조카의 관계를 다룬 「산협」(1941)이 있다.

75) 장용학의 근친애 소설로는 「원형의 전설」(1962)이 있다.

확실하게 그 이유를 밝혔다. 이효석은 “애육 갈등을 그린 작품 중에서도 골육간의 애육 내지 친간을 그린 작품은 그 자체 이미 비극적 경우를 구성하여 가장 마음을 찌르고 훌륭한 문학을 짓는 때가 많다”⁷⁶⁾고 하였고, 장용학은 “현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매개체로서 가장 적합한 소재인 줄로 알고 있다. 나는 극한 상황에 처한 대상이 아니면 의욕이 생기지 않아 쓸 수가 없고, 기성 도덕관념이 가장 좌악시 하는 것이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두터운 벽이기 때문에 큰 그릇 같은 것이다”⁷⁷⁾라고 하였다.

이러한 한국 현대소설사에서의 근친애 모티프의 양상과 관련하여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근친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또한 그것은 김동리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김동리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가족구성원 간의 핏줄의식과 남녀 간의 애정이란 두 가지 범주로 집약할 수 있다. 근친애는 이처럼 혈연의식과 남녀 간의 애정묘사가 두드러지는 김동리의 소설에서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집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모티프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그 장점만을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근친애는 사회적 금기라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유교적 윤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김동리가 근친애를 적극 활용한 데는 본인 스스로가 문학을 구경적 생의 형식이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우리는 김동리의 「무녀도」와 「역마」를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 중심 가족인 모화네와 옥화네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방문자를 일원으로 삼아 가족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그 희망은 좌절되고 만다. 그들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 이별을 통과제의의 관문으로 하여 강요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따르게 된다.

칼을 맞았던 몸의 상처보다 이부 여동생 낭이와의 관계로 더욱 극심한 마음의 병을 앓는 옥이와, 계연이 어머니의 이부 여동생이라는 사실로 이유도 모른 채

76) 진은아,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성의 양상과 성담론」,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3.

77) 오윤아,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연구-시·공간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7.

떠나보내고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앓는 성기를 보며 우리는 김동리가 말한 구경적 생을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성경책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조용히 돌아가는 육이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다시 힘을 얻어 어려서부터 소원하던 방랑길을 떠나는 성기의 뒷모습이 마냥 슬프지도 씩씩하지만도 않은 것이다.

「무녀도」와 「역마」 외에도 김동리의 다른 작품들에서 나타난 근친애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토기」(1939)와 「사반의 십자가」(1957)는 설화와 종교를 배경으로 하여 욕망의 좌절로 방황하는 주인공들을 표현하고 있다. 장사로 태어났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역쇠와 득보의 이야기인 「황토기」는 득보의 조카이면서도 그의 아이를 낳고, 역쇠와 살림을 차린 분방한 분이와의 관계를 통해 그 좌절을 극대화시킨다. 「사반의 십자가」의 사반은 메시아의 힘을 빌어 새로운 유대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은 여동생과 내연의 관계를 가지는 모순을 보인다.

「달」(1947)과 「심장 비 맞다」(1964)는 현실적인 상황이 부각된 작품들이다. 「달」에서 무당의 아들인 달이와 글방 사장 딸인 정국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로 벽에 부딪히고 달이를 짝사랑하는 외사촌 누이 숙희는 동네에 소문을 내어 정국이 자살하는 원인을 만든다. 「심장 비 맞다」의 '나'는 사랑하는 이종누이 숙영의 남편이자 지극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매형에게 조소를 보내지만 그런 자신의 문학역시 일종의 도피이며 자기변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늪」(1964)은 엄마를 잃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소년 석이와 그런 석이를 끝까지 보살피다 죽음까지 함께 하는 의붓 누나 분이를 통해 원형적 상상력⁷⁸⁾을 불러일으킨다. 석이는 엄마가 없는 현실과 냉담한 계모에게서 벗어나 모태회귀하고 분이는 자신의 역할이던 석이의 엄마 노릇을 끝까지 수행한다.

작중인물들이 근친애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며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낙관적일 수 없는 것은 근친애가 단순히 금기의 요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적인 극복으로도 어찌 할 수 없는 한계가

78) 바슐라르는 단힌 물은 그 속에 죽음을 껴안고, 물은 죽음을 원소로 하여 실체적 허무가 된다고 하였다.(G.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8, 146쪽)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마」에서 옥화가 성기를 위로했던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지 어찌겠냐”(2권 121쪽)라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본능적으로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이라 해도 결국 그것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 그러나 김동리의 목적은 파국으로 인하여 산산조각나는 인간의 운명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그 운명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나약하지만 질긴 몸부림을 묵묵히 지켜보는 데 있는 것이다. 굳이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사회의 두터운 벽을 깨기 위한 그릇의 의미가 아니어도 김동리 스스로 오래도록 접근하고 탐구해 온 생의 과정 그 자체에 그가 그려낸 근친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50여 년의 김동리 문학 전반에서 근친애 모티프의 작품 수를 따진다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수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여 설화적, 종교적, 환상적, 현실적인 모든 세계를 선보였다. 하나의 모티프로 여러 배경과 갖가지 상황을 끌어내어 수 편의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티프 자체를 김동리 작품의 특징으로 꼽아도 억지스럽지 않은 것이라 본다. 또한 그의 근친애 모티프 작품의 강점이라면 작품 속에 녹아있는 자연스러움이다. 김동리 작품 속의 근친애는 그의 펜 끝에서 ‘근친애여서 금기가 된’ 것이지 ‘금기이기 때문에 근친애를 선택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V. 결론

김동리의 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은 금기라는 제한을 가진 근친애를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며 더욱 극적인 상황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근친애는 김동리 소설의 주요 모티프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근친애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를 위해 김동리의 대표작인 「무녀도」와 「역마」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적 방법 접근을 시도하였다. 논의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부터 늘 고독했던 김동리는 어머니에 대한 욕구불만에 시달렸고, 형 범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인간적 유대와 일치를 경험하였다. 선이의 이미지를 이은 남순 누나를 통해 소녀와 어머니의 이미지를 고착시킨 채 본질적 애정을 추구하였다.

둘째, 「무녀도」의 모화 가족과 「역마」의 옥화 가족에게는 두 가정 모두 아버지가 부재하는 어머니 중심의 가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자신의 아이들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없이 무한한 애정을 쏟아 붓던 두 어머니의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일원의 뜻하지 않은 방문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낭이는 아버지가 다른 오빠 옥이와, 성기는 어머니의 배다른 동생 계연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을 찾으려 하지 않은 낭이는 자발적인 조력자가 되고, 「역마」의 계연은 옥화에 의해 그 역할을 물려받아 조력자가 된다.

셋째, 서로 대비되는 신앙을 삶의 축으로 가지고 살아온 가족들이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애쓰는 「무녀도」에서, 옥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낭이가 저와 금기를 나눈 누이이자 연인이었음을 비로소 인정한다. 「역마」의 성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일한 걱정거리였지만 정작 저 자신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던 시천역을, 어머니의 이복동생이자 자신의 이모인 계연을 사랑하는 금기를 저지르고서야 나서야 비로소 숙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저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명에 따르기로 결심함으로써 비로소 성기는 그 속에서 자

유를 찾는다.

넷째, 「무녀도」의 육이와 「역마」의 성기에게 집과 절은 통과제외의 공간이다. 절은 개인적 분리 및 격리의 공간으로 육이와 성기는 이 공간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모태회귀를 위한 공간인 집으로 귀환한다. 그리하여 육이는 죽음으로, 성기는 떠남으로 존재론적 위치를 변화한다.

다섯째, 김동리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가족구성원 간의 핏줄의 식과 남녀 간의 애정이란 두 가지 범주로 집약할 수 있다. 근친애는 이처럼 혈연 의식과 남녀 간의 애정묘사가 두드러지는 김동리의 소설에서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집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모티프라는 장점을 지닌다. 김동리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근친애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다. 파국으로 인하여 산산조각나는 인간의 운명만을 그리려던 것이 아니라 부여된 그 운명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나약하지만 질긴 몸부림을 묵묵히 지켜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김동리의 문학 과정인 구경적 생과 근친애 모티브가 작품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작중인물들의 욕망으로 표현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 간의 유사성 관련에 치중하다 보니 구조적인 해명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김동리, 「무녀도」, 『김동리 전집 1-무녀도·황토기』, 민음사, 1995.
_____, 「역마」, 『김동리 전집 2-역마·밀다윈시대』, 민음사, 1995.
_____, 『김동리 전집 3-등신불·까치소리』, 민음사, 1995.
_____, 『김동리 전집 5-사반의 십자가』, 민음사, 1995.
_____, 『김동리 전집 7-문학과 인간』, 민음사, 1997.
_____, 『김동리 전집 8-나를 찾아서』, 민음사, 1997.
_____, 「나의 문학과 샤머니즘」, 『文學思想』 제170호, 1986. 12.

2. 단행본, 논문, 평론

- 곽상순, 「모성적 전통지향의 소설화 혹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문학화」, 『작가세계』 제67호, 2005 겨울.
권정호, 「춘원의 ‘어린 벗에게’ 小考-내용구조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2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5. 11.
김미영, 「김동리 문학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한국전 이전에 발표된 평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84호, 한국어문학회, 2004. 6.
김병익, 「자연에의 친화와 귀의」, 『한국문학』, 1973. 12.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김인환, 「자작 해설의 한계-‘무녀도’의 경우」, 『민족문화연구』 제4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김철용, 「김동리 초기 문학과 문학교육」,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9.
김현주, 「김승옥 소설의 가족 해체 양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7.

- 나병철, 「이광수의 성장과 가족 로망스」, 『비평문학』 제2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5. 11.
- 민태홍, 「‘모밀꽃 필 무렵’과 ‘역마’ 비교 연구-두 작품에 내포된 근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상기숙, 「한국 현대소설문학과 샤머니즘」,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80.
- 신정숙, 「김동리 무속소설의 에로티즘 미학」, 『국어국문학』 제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12.
- 양선규, 「金東里 小說의 原型的 想像力 研究-‘巫女圖’에 나타난 近親婚의 관계 (Incest)를 중심으로」, 『김동리』, 살림, 1996.
- 오윤아,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연구-시·공간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우한용, 「金東里 小說의 談論 特性-‘무녀도’를 중심으로」, 『김동리』, 살림, 1996.
- 유기룡, 「‘그림’으로 昇華된 ‘毛火’의 죽음」, 『김동리』, 살림, 1996.
- 이동하, 「김동리에 관한 두 편의 글」, 『문학평론과 인생공부』, 새미, 1998.
- 이상구, 「김동리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청람어문학』 제6호, 청람어문교육학회, 1991.
- 이상우, 김정옥, 「김동리 소설 연구-‘역마’, ‘바위’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9호,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12.
- 이수, 『당사주』, 동화사, 1997.
- 이승준,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홍성원의 ‘달과 칼’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4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이진우,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究竟의 세계」, 『인문과학논문집』 제26호,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8.
- _____, 『김동리 소설연구-죽음의 인식과 구원을 중심으로』, 푸른사상사, 2002.
- 이택화, 「金東里 小說 研究-精神分析的 觀點을 中心으로」,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97.
- _____, 「金東里 文學 研究의 經過」, 『김동리』, 살림, 1996.
- 정호웅, 「강한 주체, 근본의 문학-김동리의 문학세계」, 『작가세계』 제67호, 2005 겨울.

- _____, 「운명의 여로-김동리의 역마(驛馬)」, 『文學思想』 제286호, 1996. 8.
- 진은아,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성의 양상과 성담론」,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3.
- 한명환, 「김동리 초기소설의 재고찰-‘무녀도’와 ‘황토기’의 설화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11호, 우리어문학회, 1997.
- 한승욱, 「정신분석비평적 관점에서 본 무정에 나타난 성욕의 의미」, 『어문논집』 제56호, 민족어문학회, 2007.
- 홍기돈, 「김동리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코드-‘무녀도’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제67호, 2005 겨울.
- _____, 「김동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3.
- _____, 「김동리의 소설 세계와 범부의 사상-일제시기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12집, 한민족문화학회, 2003. 6.
- 홍성애, 「現代小說에 나타난 江의 象徵性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8.
- 홍창수, 「김동리 巫係 소설 연구」, 『어문논집』 제34호, 민족어문학회, 1995.
- 그리말, 최애리 역,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 열린책들, 2003.
- 바파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96.
-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5.
- _____,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8.
- 비에른느,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 융, 이유경 역,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 대하여」, 『융 기본 저작집 2-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2003.
- 프로이트, 김현조 역, 『토템과 금기』, 경진사, 1993.
- _____, 오태환 역, 『정신분석입문』, 선영사, 1992.
- 프롬, 이규호 역, 「건전한 사회」, 『자유로부터의 도피·건전한 사회』, 삼성출판사, 1983.
- _____,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ABSTRACT

A Study of Kim Dong-ri's novel's incest

- Focused on 「MooNuhDo」 and 「YukMa」 -

Kim Eun-jeong

The characters in Kim Dong-ri's novels induced a more dramatic situation in many cases through fate that can not be denied with a limited taboo, incest. This incest is that Kim Dong-ri's novel is one of the main motifs.

This article appearing aspects and implications of incest in the novel to review was written for the purpose.

To this end, representative work of Kim Dong-ri, 「MooNuhDo(무녀도)」, 「YukMa(역마)」, tried to psychoanalytic approaches.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following

First, since his childhood was lonely, Kim Dong-ri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for the mother and mentally relied on brother, Beom-bu. He has experience in human equality and relation through Beom-bu. Her image with Sun-i's image following the Nam-sun Sister and mother was fixed while essentially sought affection.

Second, both 「MooNuhDo」's family and 「YukMa」's family at home without a father, mother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oriented. One day they know their children to leave and take it into the infinite love for two children. But their children undergoes changes someone

who did not think to visit a family member. Nang-i falls in love with step brother, Wook-i and Sung-ki falls in love with step sister, Kye-yeon. Nang-i who does not seek the roles of father and mother voluntarily become helpers. By Ok-hwa, Kye-yeon inherited the role of a helper.

Third, in contrast with each other to a life lived with faith, Each other's families who struggle to close the gap in 「MooNuhDo」, Wook-i in danger of death finally admits that he shared a taboo with step sister Nang-i. The only concern of her grandmother and mother, Sung-ki, in 「YukMa」. But as a major means SiCheonYeok(시천역), he who is committing a taboo with mother's half-sister realized the fate. It's not forced by someone but Sung-ki finds freedom by deciding to follow their own destiny .

Forth, in 「MooNuhDo」 Wook-i and 「YukMa」 Sung-ki, the house and temple are space of initiation ceremony. Wook-i and Sung-ki in separate section of personal space is growing in this space. Next stage, they return home. thus, Wook-i by death, Sung-ki by leaving, Ontological position is changed.

Fifth, the characters to seek through incest the salvation of the current and hope for a better future. due to catastrophe, they shattered or not tried to draw a human destiny, but he accepts his fate as weak to save themselves, as watching silently struggle to win the goal, this study is confirmed.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Kim Dong-ri literary life's process were to be review how to express with the character's desire on works. however, as I focus on work related to the similarity between works, works could explain the lack of the structural part.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leaves.